

2 0 1 1
SPRING
V o l . 2 6

| | | |
|--------------|-------------------|----|
| 세계 초우량 기업을 | COVER STORY | 06 |
| 향해 가는 원익 | DREAM SECTION | 15 |
| 원익인이 함께하는 사보 | CHALLENGE SECTION | 27 |
| | PASSION SECTION | 35 |
| | LIFE STORY | 46 |

원익인



30
30th
ANNIVERSARY
WONIK



COVER STORY

- 06 Cover Story 도전과 열정
- 08 Wonik News 원익 계열사 소식
- 12 CEO Column 기업문화의 기반은 신뢰와 창조
- 14 Discovery of Baduk 제6기 원익배 십단전 결승대국 결과

2 0 1 1
S P R I N G Vol. 26

원익

C O N T E N T S



세 계 초 우 량 기 업 을
향 해 가 는 원 익
원 익 인 이 함 께 하 는 사 보

COVER STORY

- 06 Cover Story 도전과 열정
- 08 Wonik News 원익 계열사 소식
- 12 CEO Column 기업문화의 기반은 신뢰와 창조
- 14 Discovery of Baduk 제6기 원익배 십단전 결승대국 결과

D R E A M

- 16 Wonik 30th Anniversary 원익 30주년 기념 엠블럼
- 18 Special Edition SEMICON Korea 2011
짜임새 있는 전시회 구성 속에 원익의 기술력이 빛났다
- 20 Power of Wonik Technique 국산화 기술로 신소재 개발
세라믹 시장을 선도하다
- 22 Wonik Dissertation Silicon기판에
GaN 성장(GaN on Silicon) 기술 및 응용

C H A L L E N G E

- 28 Wonik's Dream Team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공정에 최선을 다한다
- 30 Never ending challenge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 32 Self Innovation Note 고객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P A S S I O N

- 36 Zoom in 월척도 낚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낚고
- 38 Scene of Welfare Service 정성을 담은 식사 한 끼로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다
- 40 Talk Box 이런 동료에게 자극받는다

L I F E S T O R Y

- 46 Economic Report 동일본 지진 경제 여파
- 48 Concert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환상적인 뮤직 페스티벌이
찾아온다, SJF 서울재즈페스티벌 2011
- 49 Exhibition 인물 사진의 거장, 카쉬展
- 50 Health 환절기에 쉽게 찾아오는 질병들, 꾸준한 관리로 봄을 건강하게!

12

CEO COLUMN

기업문화의 기반은
신뢰와 창조



20

POWER OF WONIK TECHNIQUE

국산화 기술로 신소재 개발
세라믹 시장을 선도하다



32

SELF
INNOVATION NOTE

고객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36

ZOOM IN

일척도 낚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낚고



48

EXHIBITION

인물 사진의 거장
카쉬展



도전을 두려워하면 기회란 없다

“내 삶의 좌우명은 ‘용기를 내서 일단 해보자’이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마치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처럼 ‘아니요’ 혹은 ‘한번 생각해보죠’라고 대답한다. 그것이 작고 하찮은 일에 관한 것이든 크고 획기적인 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위의 글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함께 창조적인 경영자로 손꼽히고 있는 리처드 브랜슨의 말이다. 리처드 브랜슨은 그의 저서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에서 자신을 예스맨(Dr. Yes)이라고 표현한다. 좋은 생각이다 싶으면 “좋아요, 해보죠”라고 대답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기회조차 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1967년, ‘버진 레코드’라는 작은 레코드 가게로 시작해 오늘날 30여 개국에 약 200개의 회사로 이루어진 버진그룹의 CEO가 되었고 괴짜경영과 창조경영의 아이콘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기회조차 얻을 수 없다는 그의 말처럼 기회는 확실한 성공의 순간을 기다려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열정을 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기회를 움켜잡을 수 있다. 도전해보지도 않고 선불리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에게 리처드 브랜슨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으면 열여섯 살 때부터 비행장에 가서 커피부터 끓여라.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보고 배워라.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굳이 디자인학원에 다닐 필요는 없다. 패션회사에 들어가서 빗자루부터 잡아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다.”

고민은 도전을 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 법이다.



도전적인 인재는 문화적 환경에서 나온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맞아 줄줄이 부도가 나는 기업이 있는가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도전정신을 발휘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장하는 기업, 새롭게 창업에 성공하는 기업들도 볼 수 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는 점이다.

변화를 주저하지 않은 기업의 힘은 돈이 아닌 사람이다. 적극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문화는 구성원 모두가 서서히 만들어 가야하는 숙제다. 때문에 기업은 장기적인 시각으로 꾸준히 기존의 문화를 바꿔가도록 노력하면서 진취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한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기업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 CEO가 솔선수범하여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도전적인 기업경영을 보인다면 구성원들 또한 이를 본받아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기보다, 이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한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고 그에 따른 책임만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는 구성원들의 열정을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정신, 도전정신을 뒷받침 해줄 분위기가 조성되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기업, 원익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원익은 국제적 경쟁력의 원동력을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로 보고 지난 30년간 인재 양성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이용한 원익 회장이 "위로부터의 변화"를 강력하게 천명하면서 각 계열사 임직원들도 변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화의 흐름 속에 원익은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있어야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이를 통해 원익은 세계적인 초일류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 Passion

WONIK NEWS

원익

원익 주주총회



(주)원익을 비롯한 (주)원익쿼츠, 신원종합개발(주) (주)원익아이피에스 등 4개 코스닥 등록법인은 지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2011년도 주주총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주)원익은 2011년 3월 30일(수) 9시에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2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결산실적 승인과 감사 선임등의 안건을 통과 시키고 감사에 윤대현 상근감사가 선임되었다.

구자규 사장은 인사말에서 지속적 신규사업개발, 전문인력 육성, Passionate Team이라는 성장전력을 토대로 발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총회 후에는 참석주주와 Q&A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주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원익쿼츠는 지난 3월 25일 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구미 본사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2010년 영업보고 및 감사의 감사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하였고, 결의사항으로 재무제표 승인 및 정관일부 변경, 이사및 상근감사선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사.감사보수한도를 승인하였다. 정관일부 변경 안건은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반도체 부품관련 정밀 세정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고, 박근원 사장께서 사내이사로 신규선임 되었으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 되었다. 상근감사는 회사와 2년간 경영컨설팅 경험이 있는 방기택 감사를 신규 선임하였으며, 임직원의 동기부여의 일환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승인하였다.

이날 주총에서는 안건 승인 절차에 앞서 경영성과 설명을 통해 지난해의 경영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2011년도에도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글로벌 소재부품전문업체로 성장해 나갈 것을 선언하므로 주주들의 이해를 높였다.

신원종합개발(주) 3월 30일 오전 9시 원익빌딩 2층에서 제 2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안건인 제 28기 재무제표의 승인, 이사의 선임 및 이사, 감사의 보수한도액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으며, 신임이사로 원익엘앤디(주) 조용래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다. 조용래 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또한 회사는 상법에 의거, 3월 31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wc.co.kr>)에 제28기 결산공고를 게시하였다.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지난 3월 24일 평택 본사에서 제2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제20기 재무제표의 승인, 사명 변경에 따른 정관의 부분변경, 사내 이사 선임,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및 승인 등이 있었으며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 처리되었다. 한편 (주)원익아이피에스는 금번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주아토'에서 '(주)원익아이피에스'로 변경하며 기존의 사업부문을 통합·재정비해 본격적인 1조 매출달성도 약에 나선다.

(주)원익

Visionsense Ltd.와 3D내시경 국내독점판권계약 체결



(주)원익은 2011년 3월 9일 Visionsense Ltd. 와 3D 내시경 국내독점판권계약을 체결하였다.

3D 내시경제품은 기존 수술 현미경과 같이 배울과 초점을 맞추지 않고도 깊이감과 거리감을 3D영상기술을 이용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영상기술과는 차별화된 이점을 제공한다.

(주)원익은 신경외과 수술용 영상장비 지출을 통한 의료 기사업 다변화가 기대되며 3D내시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증을 거쳐 2012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2011년 첫번째 All Employee Meeting 개최



4월 1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주)원익의 2011년 첫 번째 All Employee Meeting이 진행 되었다. 전 임직원들이 2011년 상반기 경영성적을 돌아보고 하반기 경영전략을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미팅에서는 특히 각 사업부별로 Customer, Business, Finance 세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임직원에게 시상하는 Best Employee Award를 시행하여 각 분야에서 노력을 보인 임직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전달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또한 구자규 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은 2011년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음 가짐을 새로 하였다.

(주)원익퀴츠

환경안전 프로젝트 발대식 및 2분기 180억 달성 결의 대회 개최

(주)원익퀴츠는 환경.안전 의식정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4월 8일 환경안전 프로젝트 발대식 및 무재해 달성 프로젝트 발대식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환경안전 무재해달성과 경영성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및 계획수립 발표하였으며, 환경안전부문의 각 팀별 관리자를 선정하여 임명장을 전달하고, 안전환경의식 붐을 조성하였다. 이날 행사를 마치고 강당 2층에서 소속 직원간의 대화와 화합을 위한 생맥주 파티인 'Garden Party' 행사를 가졌다. 이날 Garden Party 행사는 직원 상호간의 일체감 조성과 화합을 위한 것으로 소속 구성원들을 서로 이해할 기회를 마련하고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쌓인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의 계기가 되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었다.



신원종합개발(주)

청담동, 수익형 프라이빗 하우스 신원아침도시 mine 분양

최근 부동산 시장에 소형 투자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강남에서도 최고의 주거지로 각광받는 청담동에 소형 수익상품이 등장해 투자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청담동 122번지에 공급되는 신원종합개발(대표:조용래)의 '신원아침도시 마인(mine)'이다. 신원아침도시 마인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갖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전용면적 24.21㎡~49.44㎡의 21개 타입으로 총 8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원아침도시 마인이 들어설 청담동은 고급빌라 및 해외 유명 명품거리가 조성된 지역으로 강남의 고소득 전문직들과 연예인 등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신원종합개발은 이러한 지역적 특색과 수요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외부는 테라스 설계를 적용하고 내부는 빌트인 가전을 비롯한 풀퍼니시드 시스템, 고급 인테리어 마감재 시공 등으로 청담동에 걸맞은 프라이빗 하우스로 선보인다고 한다.

신원아침도시 마인은 89세대 모두 소형으로 구성되



어, 청담동의 고소득 싱글족과 신혼부부, SOHO 사무실 등의 풍부한 임대수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 특히 2.23 전세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져, 안정적인 투자대상을 찾는 투자자들은 신원아침도시 마인을 눈여겨볼 만하다. 견본주택은 청담동 명품거리에 위치하며 4월 29일(금) 오전 10시에 오픈한다.

주택전시관(S/H) OPEN 일정 및 장소

일 정: 2011년 4월 29일(금) 오전 10시

(오픈과 동시에 4월 30일까지 청약접수)

장 소: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18-6 플렉시스 빌딩 3층

(청담사거리에서 갤러리백화점 방향)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아토 '주원익아이피에스' 로 사명 변경

(주)원익 IPS WONIK IPS

지난해 (주)아이피에스를 합병한 (주)아토가 (주)원익아이피에스로 새롭게 출발한다.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지난 3월 24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아토·(주)아이피에스의 합병 법인을 (주)원익아이피에스로 변경했다. 또 기존 (주)아토·(주)아이피에스의 사업부문을 통합·재정비해 본격적인 도약에 나선다. (주)원익아이피에스는 기존 (주)아토의 반도체사업 부문 외에 (주)아이피에스에서 진행해온 LCD, 태양광, LED 장비사업을 통합 진행하게 됨에 따라 전공정장비 부문을 모두 갖추게 됐다.

작은 사랑 나누기 '소망선교원' 방문 봉사 활동

지난 2월 28일 (주)원익아이피에스의 한마음 자원봉사단이 시흥에 위치한 소망선교원에 방문하며 새봄맞이 봉사활동에 나섰다.

본 나눔 활동은 소망선교원 장애우들을 위한 기저기, 세제, 휴지 등의 물품을 전달하고 저녁 배식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눔의 문화 확산이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주)원익아이피에스의사회공헌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본 활동은 통합 회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봉사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2011년 상반기 공채 신규 입사자 연수 및 OJT



(주)원익아이피에스는 2011년 상반기 공채 신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8일부터 용인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기간 동안 총 42명의 신규 입사자들은 (주)원익아이피에스의 기업문화와 업무 역량을 배우며 희망찬 회사생활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합숙 연수에 이어 곧바로 사업부 순환 OJT가 진행되었으며 3월 14일부터 2주 동안 신규 입사자들은 시화, 평택, 포승의 각 사업장을 돌며 각 사업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았다. OJT 기간 동안 신규 입사자들은 소망선교원을 방문하여 청소 및 배식, 문화공연을 시행하는 봉사활동도 펼쳤다. 원익아이피에스의 사회공헌 이념을 이해하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본 행사는 신규 입사자들과 소망선교원 측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 되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임직원 입학자녀 축하 선물 프로그램 시행

(주)원익머트리얼즈 이준열 대표는 지난 2월 24일



임직원 입학자 학부모들과 함께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금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임직원 자녀입학 선물 프로그램"과 함께 이준열 대표는 직접 직원 배우자분들을 만나 자녀 입학 축하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즐거운 대화의 장으로 좋은 시간을 만들었다. 새롭게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입학하는 임직원 자녀의 입학 축하하는 의미의 선물을 축하 메시지와 함께 배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를 가진 직원들

의 자긍심과 애사심을 높이고 가족 친화 경영을 통한 조직 융합을 시도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에 이준열 대표는 앞으로 임직원 자녀 입학 선물 프로그램을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이 프로그램 이외에도 임직원 가족을 위한, 가족을 생각하는 복지가 적극적인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전의 사업장 NO PLANT 안전지원제



지난 3월 29일 (주)원익머트리얼즈의 제2의 사업부 지인 전의사업장에서 NO PLANT 안전 지원제가 열렸다.

이날 모인 임직원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전의공단의 NO 플랜트 증설을 축하하고, 사업장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안전지원제를 진행하였다.

4월 초 NO 플랜트 증설 안전지원제와 함께 시운전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의사업단지에서 진행될 NO 합성의 자체기술 상용화를 통한 (주)원익머트리얼즈의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임원 팀장 교육



지난 4월 1일 오창과학단지에 위치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원익머트리얼즈의 임원/팀장을 대상으로 "협상력과정"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대내외 협상 스킬 함양 (WIN-WIN 전략)을 위한 과정으로 향후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략적인 협상기술을 내용으로 담았다.

이날 교육에서 참석자들은 협상의 기본이해부터 협상의 기술 및 상생적 협상스킬까지의 상세 사례 실습까지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주)원익머트리얼즈는 올해 각 분야별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스킬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적극 기대해본다.

(주)위닉스

상반기 단합 축구대회

지난 3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양재 근린체육공원에서 (주)위닉스 상반기 단합 축구대회를 가졌다. 축구대회는 대항전으로 구성하되 승패와는 무관하게 진행되어, 전 임직원들의 단합과 화합을 끌어냈다.

팀구성은 블루팀 (A조, B조) VS 레드팀 (C조, D조)이며 이날의 우승은 블루팀으로 돌아갔고 경기 종료 후 간단한 식사모임을 가지며 상반기 단합 축구대회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했다.



원익투자파트너스(주)



더벨 '2010 한국 벤처캐피탈 대상' 시상식 최종화 상무 수상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최종화 상무는 3월 29일 머니투데이더벨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중소기업청이 후원한 '2010 한국 벤처캐피탈 대상' 시상식에서 총 7개 부문중 다양한 딜소싱, 철저한 투자심사, 확고한 투자안목 등을 인정받은 투자심사역을 수상하는 Best Venture Capitalis에 선정되어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2010년 한해동안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의 성장세를 살펴보고 각 분야별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해당 심사역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상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LP) 관계자들로 심사위원단이 구성됐다.



기업문화의 기반은 신뢰와 창조



●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이용성 대표이사

“기업문화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가 어우러져 만들어집니다. 회사는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서로 신뢰를 쌓고 구성원 각자의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신뢰와 창조를 바탕으로 사람중심의 기업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기업발전의 지름길입니다.”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이용성 사장은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기업의 비전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CEO다. 이 사장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을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기업발전은 구성원 각자의 성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 **전문성은** 금융업계에 종사한지 30년. 이용성 사장은 이 같은 신뢰의 가치가 타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와 직원들에게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고도 믿고 있다.
- **‘신뢰’로부터 나온다.**

“우리 원익투자파트너스(주)는 자산운용사로서 투자의 재원을 외부 기관에 펀딩을 통해 조달하고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일에 있어 투철한 주인 의식과 높은 도덕성이 언제나 요구되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도 바로 ‘신뢰’의 덕목이네요.”

이 사장은 무엇보다도 직원들에게 신뢰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힘썼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개개인이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회사는 그런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는 믿음을 끊임없이 심어주었다.

직원들 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기 위해 임직원 워크숍, 가족 동반 모임 등을 열고, 독서토론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 습득은 물론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회사의 신뢰',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다보니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전 임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게 됐고, 자신의 일에 대한 주인의식도 확실히 갖게 됐다.

- 수평적인 분위기는
- 창의성의 근본이다.

이 사장은 직원들에게 창의성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 신뢰의 가치가 가장 큰 성장 동력이요



언제, 어디서고 직원들과의 자유로운 대화를 즐긴다. 자신 또한 직원의 한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고 저절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격이 없는 교류를 하다 보니 직원들은 회식자리에서 이 사장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다.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임에도 이 사장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다.

“우리 쪽 비즈니스는 은행이나 증권회사와는 또 달라요. 한사람이 한 분야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직원이 알파부터 오메가, 즉 투자부터 회수까지 다 하거든요. 은행으로 치면 대여섯 개 부서가 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하는 셈이죠. 이 같은 토탈 बैं킹 시스템(Total Banking System)속에서 정형화된 대응 패턴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이 사장은 주요한 비즈니스 활동인 투자이사결정에 있어서도 단독으로 판단·결정하는 일이 없다. 모든 임직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표이사인 자신도 직원들과 동등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각각의 상황을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은 물론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장의 생각이다. 또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외부 강사 초빙 강연, 재무·회계·M&A, PEF 과정 등 임직원 자기 계발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은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어 직장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벤처캐피탈(VC)업계에서는 드물게 이직률이 낮은 것도 이렇듯 직원 개개인의 생각을 존중하는 기업문화 때문이다.

이 사장은 원익의 전 임직원들이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원익만의 아름다운 기업문화를 모두 함께 만들어가자는 뜻을 전했다.

“회사를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직원들을 보면 저도 무척 행복합니다. 우리 회사 뿐만 아니라 원익이라는 큰 조직 내에서 원익가족들끼리도 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게 되길 바라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익배 십단전, 이세돌 첫 우승 “국내기전 그랜드 슬램” 달성



이세돌 9단이 원익배 십단전 첫 우승 도전에 성공했다. 지난 4월 5일 한국기원 1층 바둑TV 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6기 원익배 십단전 결승 3경기 최종국에서 이세돌 9단이 강유택 4단에게 226수 만에 백 5집반승 하며 종합전적 2-1로 우승했다.

십단전 우승으로 이세돌 9단은 현존하는 국내 대회를 모두 우승하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국내대회 그랜드슬램은 조훈현 9단이 세 차례(80년, 82년, 86년), 이창호 9단(94년)이 한 차례 수립한 바 있다.

명인전, GS칼텍스배 등 현행 9개 국내 대회에서 모두 16차례 우승했던 이세돌 9단은 십단전에서는 결승은커녕 2005년 1기와 2008년 4기 때 8강에 오른 게 최고 성적일 정도로 유독 약세를 보여 왔다.

반면 강유택 4단은 4일 열린 2국에서 309수 만에 흑 반집승을 거두며 녹록치 않은 실력을 보여줬지만 최종국에서 역전패하며 생애 첫 우승 직전 분위기를 삼켰다.

지난달 30일 강릉 메이플비치 골프&리조트에서

벌어진 결승1국에서 이 9단은 단 99수 만에 흑불계승을 거두며 결승선을 향해 기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4일 치러진 결승2국에서는 ‘불운’의 반집패를 당했다. 반집을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착각으로 반집을 진 탓에 패배의 충격은 컸다. 결승3국에서도 이9단은 전날 당한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반까지 비세에 허덕였다. 이대결을 생중계하던 유창혁 9단이 새로운 스타 탄생을 조심스레 예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기를 직감한 이9단이 좌중양 일대에서 특유의 ‘흔들기’를 시작하자 이내 반상에서는 폭풍이 일었고, 폭풍이 사그라지는 순간 전세는 역전돼 있었다. 그야말로 눈 깜짝 하는 사이에 승부가 뒤집어졌다.

그 동안 유독 원익배 십단전과는 인연이 없었던 이

세돌 9단이 이번 대회 우승으로 십단전에서의 약세를 과감히 떨쳐 버렸으며 지금까지 4강땅 한번 밟지 못한 채 약한 모습을 보인 ‘원익배 악몽’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11월 제1기 올레KT배 우승 이후 5개월 만에 자신의 34번째 타이틀을 거머쥔 이9단은 우승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중반까지 힘든 바둑이었는데, 상대가 방심해 힘겹게 우승할 수 있었다”며 “후배를 이겼으니 이제는 중국선수를 상대로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우승으로 이9단은 비씨카드배·올레배·물가정보배에 이어 4관왕에 올랐으며, 강유택 4단과의 상대전적도 3승2패로 한발 앞서게 됐다.

반면 4일 열린 결승2국에서 309수 만에 흑 반집승을 거두며 녹록치 않은 실력을 보여줬던 강4단은 다 잡았던 경기에서 역전패하며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다음 대회로 미루게 됐다.

경향신문사가 주최하고 원익이 후원하는 원익배 십단전은 우승상금 5000만원으로, 규모 면에서 국내 전체 기전 중 3위에 해당하는 기전이다.

지난해 9월 개막전을 시작으로 힘차게 출발한 제6기 원익배 십단전은 본선 진출자 총 56명의 치열한 접전과 명승부가 이어진 가운데 이세돌 9단의 생애 첫 원익배십단전 타이틀을 획득하며 막을 내렸으며, 이번달 말 한국기원에서 시상식이 실시될 예정이며 제 7기 원익배 십단전은 올해 9월부터 대장정의 막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세계 초우량 기업을 향해가는 원익인의 DREAM · CHALLENGE · PASSION

SECTION 01 Dream



16

Wonik 30th Anniversary
걸어온 30년, 나아갈 30년 원익 창립 30주년
원익 30주년 기념 엠블렘



18

Special Edition
SEMICON Korea 2011
짜임새 있는 전시회 구성 속에 원익의 기술력이 빛났다.

20

Power of Wonik Technique
(주)원익퀀츠 세라코 정우현 전무 외 직원
국산화 기술로 신소재 개발 세라믹 시장을 선도하다.

22

Wonik Dissertation
(주)원익아이피에스 박상준 상무
Silicon기판에 GaN 성장 (GaN on Silicon) 기술 및 응용

원익 30주년 기념 엠블렘

원익은 지난 30년 동안 정보화, 세계화의 거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인재육성과 새로운 기술축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건설·IT·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이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 동업계 선도적 기업으로 괄목상대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적극 활용해 대외적으로는 신뢰받는 기업으로, 내부적으로는 사람 중심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고 도전하는 선진 기업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익인이 함께 걸어온 3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30년을 기약하기 위해 원익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엠블렘을 제작하였습니다.



DESIGN CONCEPT

디자인 된 숫자 30의 형상은

열린경영과 윤리경영을 중심으로

원익인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비전을 바탕으로한

공정한 무한발전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 무한히 성장하는

원익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원익 30주년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창의·도전·공정을 중심으로

무한한 고객감동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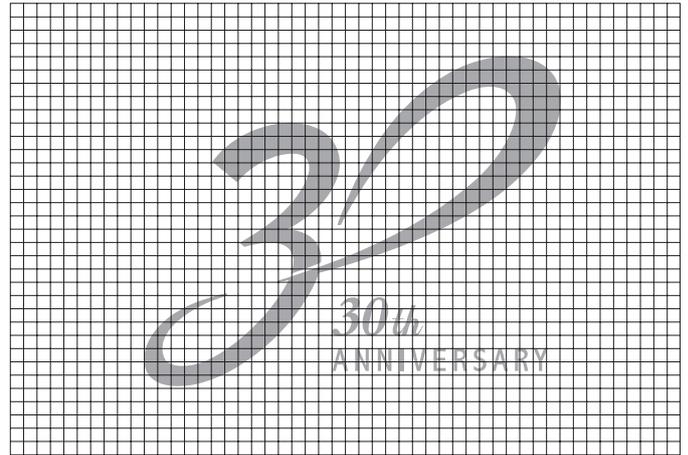
무한한 성장으로 세계 속에 중심이 되는

원익의 힘찬 미래를 상징합니다.

BASIC TYPE



Grid Type



Korean Type



English Type



APPLICATION TY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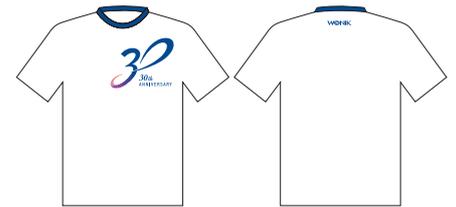
Sticker



Banner



T-Shirts



Cup



CarringBag





이번 행사는 반도체생산기술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중심으로 국내 유일의 국제 LED장비·재료 전시회인 'LED Korea 2011'도 동시에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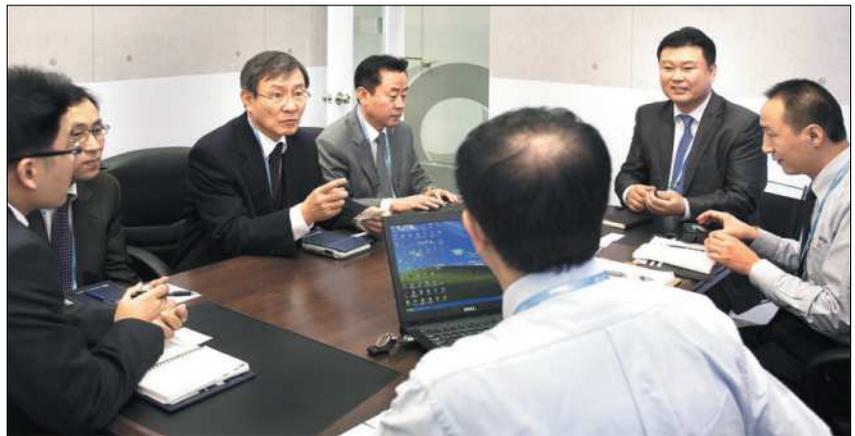
또한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는 반도체 최신 공정기술, MEMS/PE, 시스템 LSI, 국제표준 그리고 EHS(환경안전)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이 함께 준비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원익에서는 (주)원익퀴츠,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머트리얼즈의 반도체 관련 3개 계열사가 참가해 제품 전시 및 홍보 활동을 펼쳤다. 원익은 2층 규모의 3개 계열사 부스를 한자리에 모으고 블루와 화이트 컬러로 도약과 발전을 시각화했고, 1층과 2층 곳곳에 회의실을 꾸며 언제나 고객과의 만남을 준비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짜임새 있는 전시회 구성 속에 원익의 기술력이 빛났다

국내 최대의 국제 반도체 장비·재료 전시회 '세미콘(SEMICON) 코리아 2011'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총 20개국 400여 사가 전시회에 참가해 1600개의 부스를 마련하고 반도체 생산공정에 관한 최신 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였다. 참가업체들은 고객 확보와 동시에 관람객 끌어 모으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였다.



전시회 첫날에는 이용한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대표들이 직접 부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방문객들을 맞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객사인 하이닉스 반도체 권오철 사장을 비롯해

많은 고객들이 원익의 부스를 방문해 격려했다. 원익의 3개 계열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최신 기술과 장비를 선보이는 한편 국내외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전시회 기간 내내 원익의 부스에는 반도체와 LCD 관련 회사, 장비 제조사, Gas Plant 등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며, 각 부스마다 여러 건의 견적 요청과 방문 상담 요구가 이뤄졌다.

(주)아토와 (주)아이피에스의 인수합병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작년에 이어 한층 다양화된 전시회 구성을 선보였다. 전시회는 크게 세 분류로 나뉘었다. 'Semiconductor', 'Solar & LCD', 'TGS(Total Gas Solution)'로 나뉜 짜임새 있는 전시회구성이 돋보였다.

'Semiconductor' 군에서는 MAHA MP를 비롯해, DB21™, AKRA™, Bluetain™, Epion™, LED Etcher 등 생산 장비의 종류와 성능 및 특징을 자세히 소개했다. 관람객들은 작년에 기술력을 인정받은 AKRA™와 MAHA SP의 후속모델인 MAHA MP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TGS'군은 작년에 이어 Gas Purifier, Gas Supply System 등 반도체 생산에 관계된 특수가스 제어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 관람객들의 이해

를 도왔고, 'Solar & LCD'군에서는 태양전지 생산에 필요한 장비인 'Solar Cell Dry Etcher'와 'FPD Dry Etcher'를 자세히 소개했다. 'TFT-LCD Panel' 제조의 핵심장비인 'FPD Dry Etcher'는 현재 대면적 40인치 이상의 8세대 LCD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AM-OLED/LTPS 시장에 대응해 만든 'AMOLED Evaporator'를 소개하면서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주)원익퀴즈는 Tube, Boat, Cap, Bath, Accessory, Etch Part에 사용되는 다양한 부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300mm 웨이퍼 양산시스템을 갖추면서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기술 및 품질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주)원익퀴즈는 각 공정의 요구를 부응하는 내구성, 내열성, 내마모성 부품들을 전시해 다시 한 번 기술력을 뽐냈다. 특히 국산화 기술로 만들어진 신소재 부품은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주)원익퀴즈는 이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보유함으로써 퀴즈웨어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킬 계획이다.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공급하는 (주)원익머트리얼즈는 반도체, LED, FPD에 사용되는 고순도 특수가스의 종류와 규모를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생산과정과 설비를 알기 쉽게 그림과 도표로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생산시설을 추가·확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했다. 일부 외국인 관람객은 추가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등 생산시설과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 앞서 지난 1월 25일 서울 인터 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탠리 마이어스(Stanley T.Myers)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회장은 지난 해 반도체업계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도 3,19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 팹 생산시설 역시 확장세로 반등하고 있으며 특히, 300mm 웨이퍼



시장은 14% 증가, 한국, 대만, 북미의 투자에 힘입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휘도 LED 시장에 대해서 톰 모로우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CMO는 2014년까지 연평균 29.5% 성장하며 2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으며 SSL의 경우, 가정용, 산업용, 상업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보급되면서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듯 이번 전시회 방문객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만 5천여 명에 달했다.



세라코가 생산하는 세라믹 제품은 반도체 공정부품, FPD 공정부품 등 쓰임새가 다양하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가장 일반적 소재인 알루미나(Alumina, Al₂O₃)를 포함해 9가지 소재로 세라믹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 환경에 맞는 적합한 소재로 세라믹 제품 생산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절연성과 내열성, 내식성, 내마모성 등 대부분의 환경에 적합한 알루미나(Alumina, Al₂O₃)는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로 반도체공정부품, LCD 공정부품, 내열, 내마모 기계부품, 절연제품 등에 사용된다. 반도체분야가 활성화되고 공정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지르코니아(ZrO₂), 이트리아(Y₂O₃) 등 신소재도 각광받는 추세다. 더불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반도체 분야의 생산 기술이 고집적화 됨에 따라 더욱 세밀한 작업에 유용한 비산화물 소재의 부품 도입도 이뤄지고 있다.

국산화 기술로 신소재 개발 세라믹 시장을 선도하다

반도체를 비롯하여 많은 산업용품 분야에서 세라믹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주)원익쿼츠는 뛰어난 세라믹 기술력을 보유한 세라코를 인수하여 이 같은 흐름에 빠르게 대처함과 동시에 부품생산의 국산화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주)원익쿼츠는 새로운 세라믹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생산하게 됨으로써 쿼츠웨어와 세라믹스 산업에서 경쟁력을 한층 높여가고 있다.



세라코 정우현 전무는 이 같은 세라믹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다. “세라믹 업체는 크게 산화물과 비산화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는 산화물 소재가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비산화물 소재의 규모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라코는 산업전반에 쓰이는 대부분의 비산화물로 생산이 가능한 상태다.

내열충격성과 전기절연성, 열전도성이 뛰어난 질화붕소(BN, BN Composite)를 비롯해 질화규소(Silicon Nitride, Si₃N₄), 탄화규소(High Purity Silicon Carbide, SiC) 등 비산화물 소재의 연구 및 개발을 마치고 생산을 준비 중이다.

질화붕소(BN, BN Composite)는 산소 또는 공기 분위기에서 900℃, 진공 및 불활성 Gas 분위기에서는 2000℃ 이상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반도체공정부품, Implant, CVD 부품으로 사용된다. 또한 파괴에 대한 인성이 뛰어나고 고온에서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질화규소(Silicon Nitride, Si₃N₄)는 열처리용 Jig, 용접용 Location Pin, 반도체공정부품 등 가혹한 환경에 사용되고 있다. 탄화규소(High Purity Silicon Carbide, SiC)는 실리콘(Si)를 대체할 차세대 소재





세라믹 제품 생산의 원료에 대한 연구와 끊임없는 실험에 바탕을 둔 연구 수 있는 결과

로 공정 시 불순물이 없어 기존 실리콘(Si) 비교해 공정특성이 상승하고 설비효율 및 공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료조합에서부터 가공까지 모두 자체 기술로 가능하다는 점은 앞으로의 전망이 밝은 이유 중 하나다. 정 전무는 “세라믹 분야는 신소재 개발이 이뤄져야만 현상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끊임없는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진행속도도 빠르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비산화물을 다루는 업체가 한 두 업체에 불과하며 연구와 개발도 미흡한 상태다. 그나마도 대부분 해외에서 기술을 사오고 있다.”고 현재 업계상황을 설명했다. 모든 공정을 국산화 기술로 진행이 가능함에 따라 연구, 개발 및 기술 수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소재 개발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강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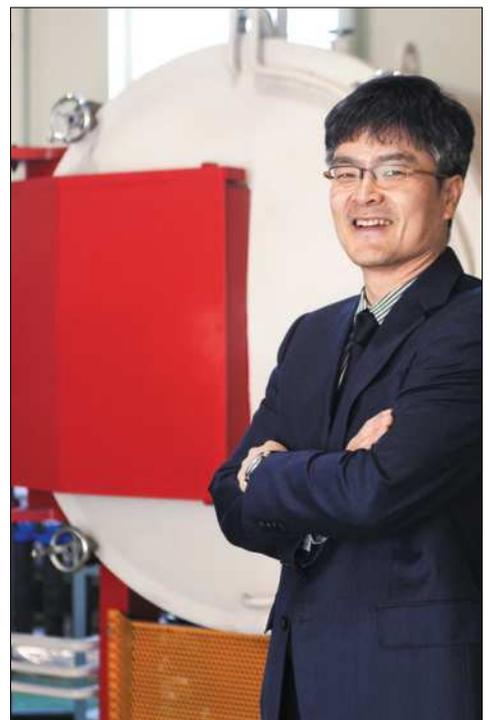
정 전무는 신소재 세라믹 제품생산을 상감청자에 비유하면서 “현재 도자기를 만드는 방법은 모두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감청자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은 조성과 소결 과정에서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크게 조성(원료혼합)과 소결(굽기)로 나뉘는 세라믹 제품 생산은 원료에 대한 연구와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이다.

정 전무는 “많은 실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산화물 비산화물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신소재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정 전무는 “시장 선점을 고려한다면 해외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산화하는 게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밝히면서 꾸준한 신소재 개발을 약속했다.

2010년도 (주)원익퀴즈의 매출액은 약 624억 원. 2011년도 매출예상액은 25%정도 신장된 784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1년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에 올 해 (주)원익퀴즈와 세라코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글 김도웅 · 사진 조인기



Silicon기판에 GaN 성장 (GaN on Silicon) 기술 및 응용

1. 서론

Gallium Nitride (GaN)을 이용한 기술이 최근 LED(Light Emitting Diode) TV의 등장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LCD에 사용되는 형광등을 이용한 BLU (Back Light Unit)가 LED로 대체 되면서 LED산업은 크게 성장하였다. GaN 물질은 다른 반도체 물질과는 달리 광, 고주파 및 전력소자에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1은 전자소자용으로

| Material | Band gap (eV) | Electron mobility (cm ² /Vs) | Critical electric field (V/m) | Thermal conductivity (W/mK) | T _{max} (°C) |
|----------|---------------|---|-------------------------------|-----------------------------|-----------------------|
| Si | 1.1 | 1300 | 300,000 | 130 | 300 |
| GaAs | 1.4 | 5000 | 400,000 | 55 | 300 |
| SiC | 2.9 | 260 | 2,300,000 | 110 | 600 |
| GaN | 3.4 | 900 | 3,000,000 | 700 | 700 |

표1. 반도체 소자에 응용 중인 대표 물질의 특성 비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물질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실리콘은 대구경화와 저가격화가 가능하며, 특히 이미 반도체 제조 infra를 잘 갖추고 있어 널리 사용 중이나, 간접천이 밴드갭, 작은 에너지 밴드갭, 낮은 열적 안정성의 이유로 전력전자, 고주파 소자, 발광 소자에는 불리하다. 반면에 GaN은 3.4 eV의 에너지 밴드갭을 가진 직접천이 물질로 천연색 광소자에 제작에 유리하며, 고온에서 안정된 특성, 우수한 내압특성 및 우수한 열 전도 특성으로 전력소자 및 고주파소자에도 적합하다. GaN는 대구경의 기판제작 기술에 한계가 있는 물질이라 저가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림1에 GaN의 응용분야를 요약하였다. 크게 laser diode, LED 그리고 전력/고주파 소자분야로 나뉜다. 현재는 LED가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그 다음은 LED 조명과 전력소자가 시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력, 고주파분야는 에너지 절약 및 고압 소자에 GaN 물질이 강력한 후보이다. 특히 전기자동차와 태양광 인버터에서 기존의 실리콘 소자를 대체할 물질로 주목 받고 있다. 소자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GaN 기판이 상용화되지 않아 다른 기판위에 GaN 단결정을 성장시켜 소자로 가공해서 사용해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기판은 단결정 Al2O3인 사파이어이다. 사파이어 기판은 제조 단가가 높고, 세계의 몇몇 회사만 공급하고 있어 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최근 사파이어 기판은 LED 제조단가에 부담이 되고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등 LED의 저가격

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homoepitaxy의 경우와 달리 사파이어나 실리콘 카바이드(SiC) 기판을 사용한 Heteroepitaxy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사파이어나 실리콘 카바이드는 고가의 기판이고, 대구경화가 어려워 GaN 소자의 저가격화에 어려움이 있다. 널리 사용중인 사파이어 기판은 열전도도가 낮아 발열 문제가 있는 소자의 특성에도 불리하다. 최근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잘 발달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을 기판으로 이용하여 GaN 에피를 성장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GaAs를 이용한 소자가 개발될 때도 실리콘 기판을 이용하여 저가격화 대면적화를 시도 했으나 두 물질 사이의 격자상수와 열팽창계수 차이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GaN 물질은 GaAs와 달리 많은 defect에서도 사용 가능한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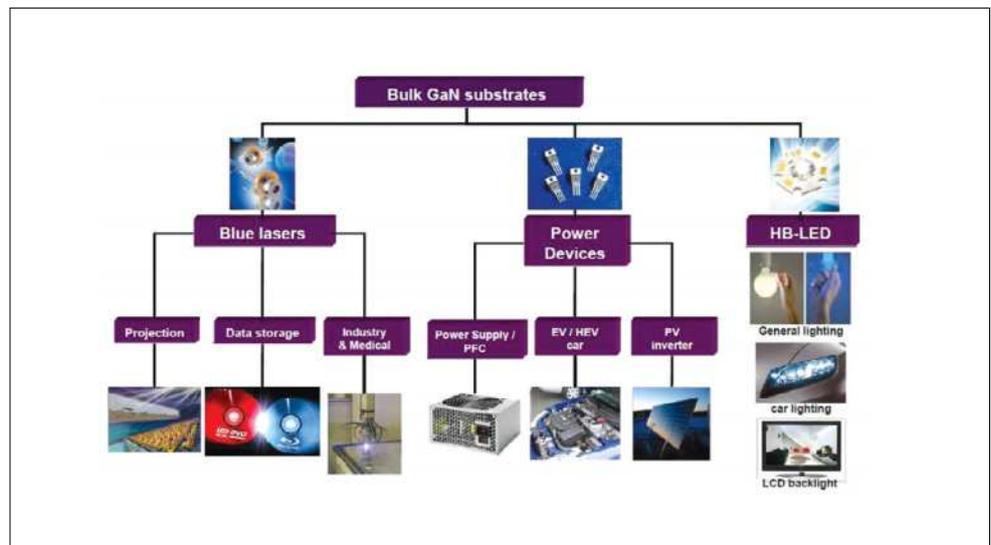


그림1. GaN의 다양한 응용 분야

적, 광학적 특성을 나타내, 상업화가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에서는 GaN의 물질을 이용한 조명 및 전력소자의 상용화의 좋은 기술인 GaN on Silicon의 기술과 동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 2. 실리콘 기판을 이용한 GaN 에피 기술 ■

표2는 실리콘, GaN, 및 사파이어의 격자상수와 열팽창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사파이어위에 성장시킬 때 보다 실리콘 기판 위에 성장시킬 경우 두 물질간의 16% 격자상수차이와 54% 열팽창 계수의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양질의 GaN 에피 막을 얻기는 불가능하다. 이들 성질 차이를 극복하고, 소자에 적용 가능한 양질의 에피 막을 얻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3은 GaN 에피를 성장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기판에 따른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GaN/Sapphire의 경우 14% lattice mismatch

를 가지고 있고 ~10E8/cm2의 dislocation density를 가지는 반면, GaN/Silicon의 구조에선 보다 큰 lattice mismatch와 이로 인한 10E10/cm2의 dislocation density를 가지고 있어 소자제조에 적합하지 않다. 물론 실리콘기판은 12인치까지 대구경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stress 및 dislocation을 줄이는 대표적인 연구로 compressive stress와 tensile stress를 가지는 공정을 혼합하여 에피층을 증착 사용하는 방법, 비정질층을 이용 stress를 조절하는 방법, patterned 기판을 이용 스트레스와 dislocation을 줄이는 방법 등이 소개되고 있다(1). 최근 가장 주목 받는 방법은 실리콘기판과 GaN 에피층 사이에 buffer층을 사용하여 crack free한 양질의 GaN층을 얻는 방법이 있다. AlN나 AlGaIn층을 실리콘과 GaN 에피 층 사이에 buffer층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사용하면 compressive stress가 만들어지고 저항도 증가하여 절연기판으로도 사용하게 해준다. 추가로 AlGaIn/GaN superlattice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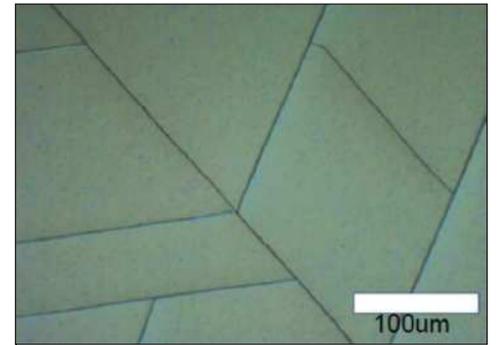


그림3. GaN on Si(111)에서 발생하는 Crack의 예

AlN를 성장시킨 후 GaN 층이나 GaN/AlN strained layer superlattice(SLSs)를 성장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Superlattices는 LED나 전자소자에 strain 조정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구조이다. 그림3은 실리콘 위에 GaN 증착시 발생하는 dislocation 및 stress에 의해 발생된 Crack 사진이다(3). Buffer 없이 증착된 GaN는 상업용 소자 제조에는 부적합을 알 수 있다.

| Materials | Crystal Structure | Lattice Constant (a-axd) A |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10E-6/K) at 300K |
|--------------|-------------------|----------------------------|--|
| GaN | Hexagonal | 3.18 | 3.1 |
| Silicon(111) | Diamond | 3.84 | 2.57 |
| Sapphire | Hexagonal | 4.76 | 5.9 |

표2. GaN, Si 및 사파이어 주요 물성 비교

| | GaN Sapphire | GaN SiC | GaN Silicon |
|---------------------|--------------|-----------|-------------|
| Limited Size | 2"~6" | 2"~3" | 2"~12" |
| Lattice Mismatch | 14% | - | 19% |
| Dislocation Density | ~10E8 /cm2 | ~10E8/cm2 | ~10E10/cm2 |

표3. 기판 종류에 따른 GaN 에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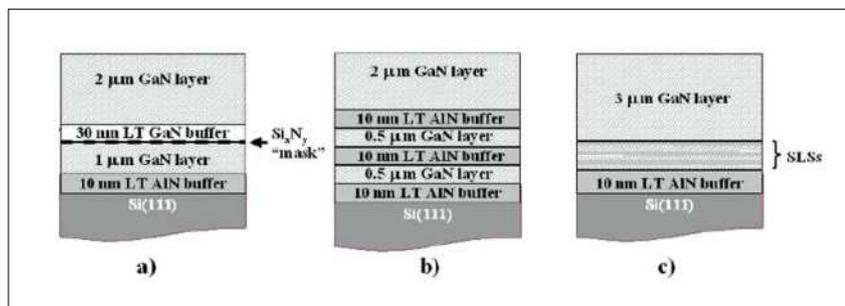


그림2. GaN on Si(111)의 구조의 예

buffer로 사용하면 보다 양질의 GaN층을 실리콘 기판 위에서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그림2는 AlN를 buffer로 이용한 GaN on Si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실리콘 기판위에 저온에서

3. GaN on Silicon의 LED 응용

현재 주로 사용중인 사파이어 위에 GaN LED를 제작하는 방법은 사파이어의 기판의 대구경화 어려움으로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힘들다. 상용화된 6" 사파이어 기판은 매우 높은 가격으로 LED 에피 제조 원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조명용 LED의 시장확대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수직형 LED가 양산화되면 사파이어 기판을 여러 번 사용하기 때문에 수평형보다 원가측면에서 유리하나 lift-off와 합착 공정의 추가로 생산성 측면에서 여전히 부담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획기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기판을 실리콘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실리콘은 12인치까지 대구경화가 가능하고 열전도도 특성도 양호하고 가격도 저렴하여 매우 매력적인 GaN 에피 기판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리콘 기판과 GaN간의 열팽창계수 차이와 격자상수 차이로 인해 10E10/cm2이상의 dislocation 결정결함으로 양질의 GaN 에피 막을 얻을 수 없다. 또한 발생된 빛이 실리콘기판에 흡수되어 광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사층이 형성된 기판에 GaN 에피 층을 합착하고, 기판으로 사용한 실리콘을 제거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스트레스에 의해 균열이 생겨 두꺼운 GaN 에피 증착이 불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기술인 실리콘 기판 위에 직접 GaN를 성장시키지 않고, GaN 증착 전에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 buffer 층을 삽입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표4는 실리콘을 기판으로 사용하여 LED가 실리콘 기판의 직경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2015년에는 지금의 1/10수준까지 내려 갈 수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림 4는 기

| Timeline | Today | 2012 | 2015 |
|---------------|---------|----------|----------|
| Efficacy | 70 lm/W | 90 lm/W | 120 lm/W |
| 7W/45W ASP | \$30 | \$8 | \$4 |
| 10W/60W ASP | - | \$12 | \$6 |
| Si wafer size | 50mm/2" | 150mm/6" | 200mm/8" |

표4. Si 기판 위에 성장된 GaN LED의 특성 및 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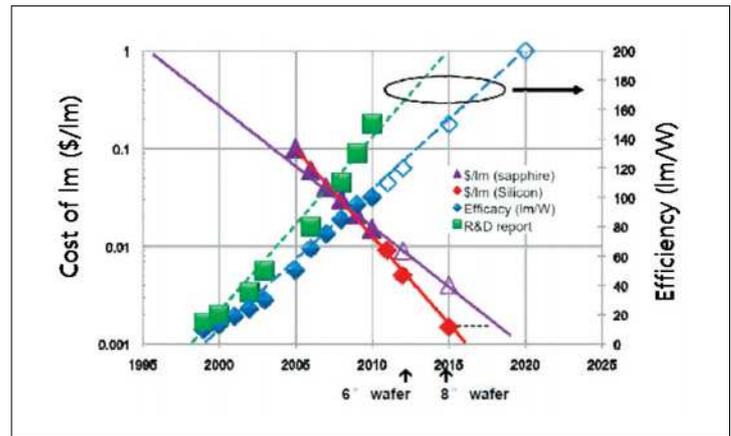


그림4. 기판 종류에 따른 LED 가격 예상 변화

판의 종류에 따른 효율과 가격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실리콘 8인치를 이용한 경우가 훨씬 파른 기술기로 가격 경쟁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림5. GaN on Si 기술을 이용한 8인치 LED용 에피 제품 (Bridgelux Inc.)

현재 lm당 0.01\$인 GaN on Silicon LED가 2016년에 1/10정도로 낮아진다고 예상한 내용이다. 즉 조명용 LED시장을 빨리 확장하기 위해서 GaN on Si은 매우 중요한 기술임을 알 수 있다.

최근 135 lm/W의 cool-white LED를 Bridgelux Inc.,가 발표하였다.그림 5 8인치 실리콘 기판 위에 비교적 양질의 에피 층을 성장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대구경 실리콘 기판을 이용한 LED 생산이 가능하다는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외국의 대기업은 GaN on Si 기술을 이용한 LED 생산 계획을 발표하였다.

4. GaN on Silicon의 전력소자에 응용

LED 분야뿐 아니라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의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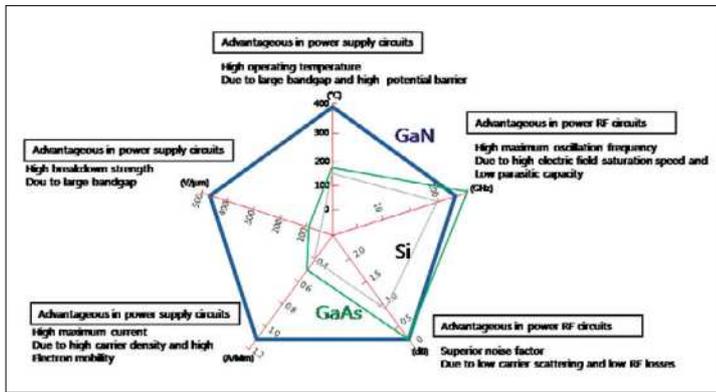


그림6. 전력/고주파 소자 재료로서의 GaN, Si alc GaAs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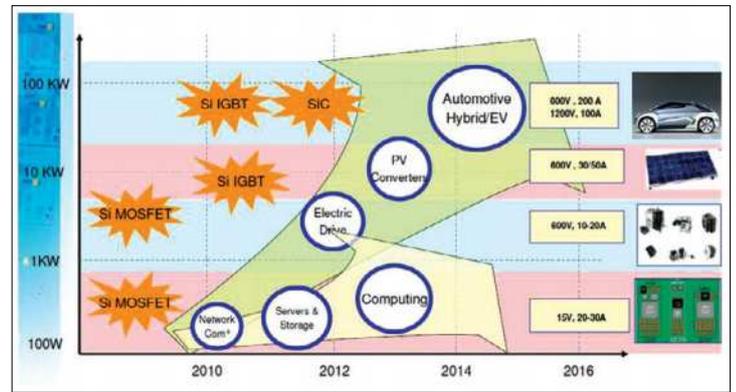


그림8. GaN 전력소자의 응용 확대 분야

성이 부각되는 전력소자분야에서도 GaN의 응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GaN는 현재 사용중인 실리콘 전자소자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강점이 있다.

그림 6은 GaN, 실리콘 그리고 GaAs 전력 및 고주파소자의 성능을 비교한 것이다. 모든 항목에서 GaN가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큰 에너지 밴드 갭, 높은 전자이동도, 높은 항복전압, 높은 열전도도 등이다. 그러나 양질의 에피 층을 SiC 나 사파이어 위에 성장시키면 높은 가격과 열적 특성의 문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GaN 에피 층을 실리콘 기판 위에 성장시키면 된다.

그림 7은 GaN를 이용한 HEMT (High Electron Mobility Transistor)의 구조를 나타 낸 것이다. 실리콘 기판 위에 이미 설명한 방법으로 buffer 층을 성장시키고 그 위에 GaN active 층을 증착한 후 AlGaIn를 증착하면 계면에 2DEG (2

dimension electron gas)가 생겨 매우 높은 이동도($>2,000 \text{ cm}^2/\text{Vsec}$)를 가진 소자가 제작된다. 계면에서는 이온화된 격자가 없어 산란이 적어져 높은 이동도를 가지게 된다. 실리콘을 기판으로 사용하면 사용온도가 높아도 별도의 냉각시스템이 필요없어 대용량의 전력 공급장치에서는 매우 유리하며, 전력변환 효율도 매우 높아 진다.

그림 8은 GaN 전력소자의 응용 분야를 실리콘 소자와 GaN 전력소자로 대체분야로 나타낸 것이다.(4) 초기에는 비교적 낮은 전력용에 사용되고, 궁극적으로 전기자동차와 같은 분야까지 기존의 실리콘소자를 대체함으로 시장을 확대 함을 알 수 있다. 에너지 절약 관점에서 시장이 더욱 확대 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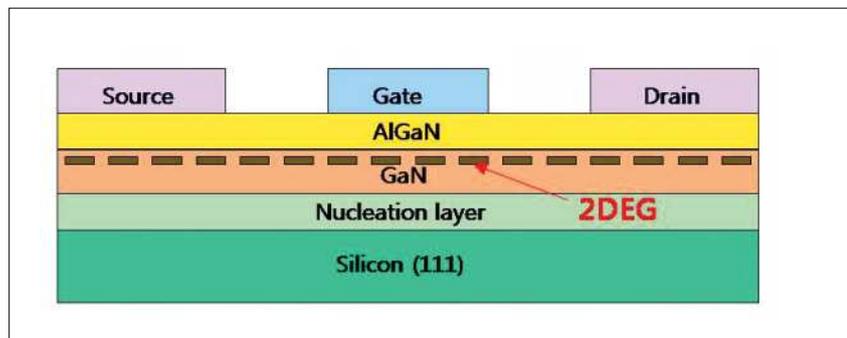


그림7. GaN HEMT 구조의 개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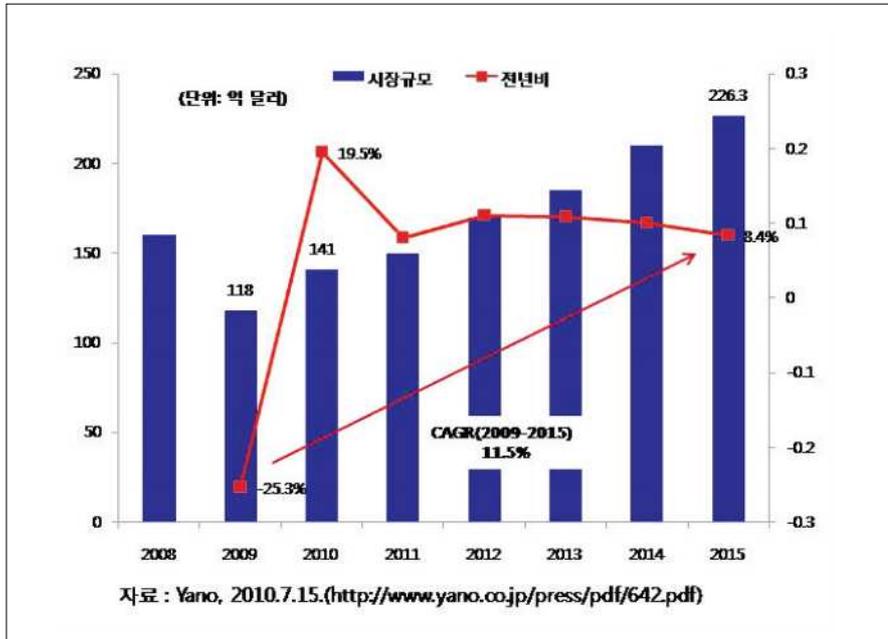


그림9. GaN HEMT 구조의 개략도

그림9는 전력반도체의 시장 전망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는 150억 달러규모에서 2015년에는 220억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예측되고 있다. 연평균 성장도 11.5%로 성장할 것이며 이상 성장의 주요 동력이 GaN 전력소자가 될 것이다. 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가격대의 전력소자용으로 상품화가 되고 에너지 절약 상품과 태양광 인버터 등으로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기자동차가 대중화 되면 현재의 실리콘 전력소자는 낮은 항복전압과 낮은 동작 온도 특성으로 인해 GaN 전력소자로 대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리콘 전력소자는 많은 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부피가 큰 냉각장치가 필요해 효율과 공간 면에서 GaN보다 불리해 진다.

이상의 GaN 전력소자도 반드시 실리콘 위에 성장시켜야 높은 기술적, 경제적 경쟁력을 가진다. 이에 GaN on Si 기술은 매우 유망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여러 산업이 발전된다고 생각된다.

맺음말

GaN의 우수한 열적 전기적 특성과 대구경 실리콘 infra를 조합하면 현재 사파이어 기판을 기반으로 하는 LED와 전력소자 한계를 넘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GaN on Silicon 기술은 조명용 LED와 HEMT같은 전력소자의 기술 혁신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LCD의 BLU 산업에만 치중된 한국의 LED 산업의 도약을 위해 GaN on Si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장비 및 공정 개발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기존의 실리콘 산업의 infra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본 기술의 개발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판단된다.

2인치에서 6인치까지만을 고려 중인 GaN 제조 장비도 8~12인치에 대응 할 수 장비 개발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새로운 장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시장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1. S. Pal & C. Jacob, Bull. Mater. Sci, Vol. 27, No. 6 Dec. 2004, pp. 501-504.
2. P.R. Hageman, et al., Mat. Res. Soc. Symp. Proc. Vol. 693, 2002, pp. 13.20.1~13.20.6
3. Sonny Wu, "Silicon-Based GaN High-power LED," SEMICON West 2010
4. Hughes Matras, "High Hopes, Big Challenges for GaN/Si Power Devices Addressing Energy Conversion Applications," EPOSS Annual Forum, 2010

세계 조우량 기업을 향해가는 원익인의 DREAM · CHALLENGE · PASSION

SECTION 02 Challenge



30 Never ending challenge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28 Wonik's Dream Team
신원종합개발(주) 원익아이피에스 진위공장 건설현장팀 김성진 소장 외 직원들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공정에 최선을 다한다



32 Self Innovation Note
㈜원익 이승룡 메디칼 3팀 팀장
고객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Wonik's Dream Team

신원종합개발(주) 원익아이피에스 진위공장
건설현장팀 김성진 소장 외 직원들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공정에 최선을 다한다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은 커대한 톱니바퀴와 같다. 수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계처럼 작은 부분 하나라도 제 때 진행되지 못하면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시간에 맞게 적재적소에 자재와 인력이 배치될 때, 비로소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막노동' 인식과 달리 상당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었다.

유 기 적 인
작 업 진 행 이
중 요 하 다

지난 3월 18일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주)원익아이피에스 공장 건설 현장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건축 자재를 실은 트럭들이 끊이지 않고 건설현장을 오고가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김양준 과장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김 과장은 “평택에서 제법 규모가 큰 건설현장이다.”라고 말하면서 “5월 31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75%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야기했다.

새롭게 짓는 건물들은 (주)원익아이피에스 공장과 사옥 건물로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주)아톰와 (주)아이피에스가 통합하면서 늘어난 인원을 수용하고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김 과장의 안내를 받아 건설현장 내부를 둘러보았다. 건물 내부는 아직 마감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각 층마다 작업이 다 달랐다. 어떤 층은 배선작업을, 또 다른 층은 내부벽 마감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정영훈 대리(안전담당)가 있는 C동 3층은 수도, 전기 공사가 한창이었다. 김 과장은 “각 공정순서에 맞게 일을 할당하고 작업을 진



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유기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건설현장에는 20여 팀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20개 담당분야 모두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작업이 밀립니다. 그만큼 작업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안 정 적 인
작 업 을 위 해
수 칙 준 수 는
필수사항이다

“머리 조심하세요.” 김 과장의 이야기에 서둘러 머리를 낮췄지만 구조물에 안전모가 부딪혔다.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계단을 올라갔지만 익숙해질 때까지 같은 실수를 두세번 반복했다. “건설현장은 항상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요.” 안전관리를 맡고 있어서 인지 김 과장의 말은 사뭇 진지했다. 실제로 김 과장은 취재를 진행하는 중에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인부를 불러 세워 야단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꼼꼼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온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한 번에 몰려올 정도라고. 김



과장은 “특히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가 쉽지가 않다.” 말하면서 안전관리 일은 보람보다 “별 탈 없이 잘 넘어갔다.”는 안도감이 더 큰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쉽지 스트레스도 많다. B 동으로 이동하는 중, 김 과장이 또 직원을 불러 세운다. 트럭이 세륜기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장을 드나드는 트럭은 바퀴에 묻은 흙을 반드시 씻어내야 하는데 그 장치가 바로 ‘세륜기’라고 한다. 안정적인 작업의 진행을 위해 많은 규칙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날씨 등 제약이 많지만 보람 있다

현장 내부를 모두 둘러보고, 김성진 현장소장을 만날 수 있었다. 올해로 20년이 넘는 경력의 그는 지금까지 십 수 차례의 건설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위치와 이름만 말해도 알만한 건물도 상당했다. 김 소장은 건설현장의 체계를 군대에 비유하면서 “건설현장은 전쟁터와 같다.”고 말했다. 언제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또 기울여야한다는 것이다.

“현장은 정신없이 바쁩니다. 하루 동원 인력이 350~400명인데, 일반 제조공장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작업량이 항상 일정할 수가 없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한 공정에서 선행 공정이 느려지면 전체공정이 늦어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톱나바퀴와 같습니다.” 공사의 가장 큰 복병은 바로 날씨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8월~9월 60일 중 총 36일 동안 비가 왔다고 한다. 김 소장은 “비가와도 눈이 와도, 추위도 안 되는데,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는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와서 다들 고생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날씨에 얽힌 에피소드들도 많다. 비가 많이 내려서 전기실이 물이 잠

긴 적도 있고, 내린 눈을 쓸어내다가 발에 동상이 걸린 적도 있다고 한다. 현재 건설현장 팀은 그동안 날씨로 인해 늦어진 작업을 만회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식당이 없는 관계로 건설현장 팀은 식사를 시켜먹는 편인데 매번 반 이상의 밥그릇은 뚜껑이 그대로 덮여 있을 정도다. 김 소장은 “건설은 외향적, 활동적, 건물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남성적인 직업”이라고 말하면서 “어렵고 위험한 3D직종이라서 젊은 사람들이 없다. 기술을 배우려면 젊을 때 현장을 나와야한다.”고 솔직한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젊은 시절부터 현장을 다니면서 쌓은 노하

건설은 외향적 활동적 건물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남성적인 직업

우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말해줬다. 앞으로 2개월 남은 일정. 김 소장과 그의 팀원들은 어떤 마음일까? 김 소장은 “적어도 30~50년 쓸 수 있고 동시에 기능성을 엄두하고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밝히면서 “어떤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튼튼하게, 검사도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내 집을 짓는데 어떤 작업이든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쉬는 날에도 현장에서 전화가 올까봐 종종 현장에서 쉬는 게 마음 편하다는 김 소장. 아마도 팀원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사가 끝나고 웅장한 신공장의 모습을 보면서 김 소장도 건설현장 팀원들은 다시 한 번 뿌듯함을 느낄 것이다.

글 김도용 · 사진 조인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지난해

한 CEO가 눈물을 보이는 동영상 이 화제가 됐다. 영업이익으로 일본에서 NTT 그룹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다. 창립 30주년을 맞아 주주 앞에서 '소프트뱅크의 향후 30년간 비전'을 선포하며 손정의 회장은 눈물을 보였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이분 일본 대지진 복구 성금으로 최근 100억엔(약 1300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일본 네티

즌 사이에서는 "손 회장이 총리를 맡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돌았다.

그런 손 회장은 2시간이 넘는 발표에서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고독"이라며 "타인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는 말로 기업 이념과 비전을 정리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의 압권은 딱딱한 얘기가 끝난 후, 어느 할머니의 흑백사진이 대형 스크린에 뜬 다음부터다. 손 회장은 자신의 할머니 사진을 주주에게 보여주며 한국인으로서 또 가난한 고학생으로서 일본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개인사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손 회장은 할머니로부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은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이런 가르침을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구현하겠다고 발표를 마친다.

손 회장은 마지막 20여 분간 감정에 북받친 듯 목소리가 갈라졌고, 급기야 두어 번 눈물을 보였다. 청중은 그가 눈물을 보일 때 가장 큰 박수를 보냈다. 6월25일 있었던 이 비전 발표 장면





창업은 신성한 영역이다

창업자가 그 회사를 가장 잘 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을 담은 동영상이 벌써 5개월째 입소문만으로도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데는 일본 대기업 CEO의 눈물이라는 흥행코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포털에서 통신으로 사업을 개척하면서 수년간 연간 1조 원씩 적자를 내고, 악의적인 루머에 시달렸던 손정의 회장과 주주간 간극도 눈물을 통해 상당 부분 메워졌다는 후문이다.

소프트뱅크는 총자산이 4조3750억엔(약 56조원)으로 도쿄증권거래소 시가총액 8위를 하고있는 일본의 대기업이다. 손정의(54) 소프트뱅크 회장은 창업 30년 만에 회사를 초일류로 키운 입지전적 인물이다. 1981년 9월 손 회장은 아르바이트생 두 명을 데리고 창업했다. 최근 1년간 이 회사 주가 상승률은 44.2%. 도쿄 증시에 상장된 대기업 가운데 1위다.

그는 제일동포 3세다. 1957년 일본 규슈의 사가현에서 네 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일제시대에 탄광 노동자로 일본에 왔다. 아버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사판에서 막일을 해야만 했다. 손 사장은 "우리 집은 번지수가 없었다. 길 한복판이 주소였다"고 말한다. 그는 무허가 판잣집에서 태어났다.

1973년 손 회장이 고교 1학년 때, 미국에 한 달간 어학연수를 가면서 인생이 변했다. 미국이라는 신세계가 그에게는 신천지였다. 이때 충격으로 그는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는 24세였던 1981년 일본으로 돌아와 자본금 1000만엔으로 창업한다. 1994년에는 상장을 하면서 급성장을 이어나갔다. 특히 1995년 미국 야후에 150억엔을 투자하는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사업을 키워나갔다. 2000년 그는 재산 760억달러로 포브스 선정 세계 4위의 부호에 선정된다.

하지만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소프트뱅크는 대규모 적자와 추가 폭락으로 고전한다. 이 와중에 손 회장은 승부수를 던진다. 2006년 일본 3위의 이동통신 사업자였던 보다폰재팬을 인수한 것. 그 이후에는 통신기업으로 재빠르게 변화하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손정의 회장의 지론은 많은 기업을 사되 경영권까지 건드리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소프트뱅크가 활발하게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지만, 항상 지분율을 30~40%대로 유지하는 이유다. 손 회장에게 창업은 신성한 영역이다. 창업자가 그 회사를 가장 잘 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정연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기자

Self Innovation Note

(주)원익
이승룡 메디칼 3팀 팀장



고객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공간이다. 그리고 공급은 수요가 있을 때 생성된다. 때문에 마케팅은 수요를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제품과 기술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고객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거듭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자기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해라

(주)원익 메디칼 3팀의 리더인 이승룡 팀장은 올해로 16년차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이다. 95년도에 입사해 현재까지 메디칼

팀에서 일하는 그는 자신의 일을 '유행'에 비유했다. "입사 때부터 메디칼 팀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패션시장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행인데요, 메디칼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름다움의 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과거 미인의 기준은 동양적인 '부드러운 곡선'이었지만 현대 사회의 기준은 오히려 서양에 가깝게 변화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연장선에 '건강'도 포함되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적극적이다. 운동은 물론 비만치료관련 의료적인 기술에 이르기까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다.

이 팀장은 "지금 메디칼 팀은 에스테틱 메디칼 필드(Esthetics medical field)에 초점을 맞추고 있



메디칼사업은 유행인 데요 메디칼 사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고 말하고 “2~3년 주기로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항상 연구하고 따라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 세미나에 참가해 얻은 정보를 스터디를 통해 자세히 분석하는 등 끊임없이 연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피부미용, 성형 분야의 최근 트렌드를 비침습성(noninvasive)으로 설명했다. “사회생활에 바쁜 사람들에게 수술은 입원을 해야하는 등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축소시켜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실수도하고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이 많다.”고 했다. 많이 부딪히면서 겪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자 신 감 을
가 지 고
부 딛 혀 라** 지난해 메디칼 팀은 20:1이 넘는 경쟁률을 이겨내고 냉동지방분해술 비만치료기 젤틱 (Zeltiq) 계약에 성공했다. 젤틱은 지방이 온도에 민감한 점을 이용해 지방을 제거하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는 세계최초다. 현재 젤틱은 비만치료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공은 강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이 팀장은 “우리는 십 수 년간 이미 수려한 의료기기들을 유통해왔고,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젤틱 에스테틱에서 그 점을 높이 평가해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원익은 현재까지 써마지, 프락셀, 루메니스 원 등 대표적인 피부과 의료장비 브랜드들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평소에 많은 교류를 해온 덕에 반대로 개발사 쪽에서 원익에게 계약을 제시해온 적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경쟁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이 팀장의 스승이자 상사인 이창진 상무는 “일에 미쳐라,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면 무엇이든 달성할 수 있다.”고 이 팀장에게 이야기를 한단다. 어떤 분야에서든 열심히 파고들고 실력을 쌓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팀장은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았다. 그가 웬만한 전문가보다 의료기기의 사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팀장은

**일 에 미 쳐 라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면 무엇이든
달성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새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
지만,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과의 신뢰는 새로운 이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팀장은 자료 수집과 연구, 개발만큼이나 고객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시업특성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고객은 의사들이고 현장에서 얻어진 피드백은 앞으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앞으로의 트렌드를 예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고객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만큼 잠재적인 이윤의 창출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꾸준한 교류와 함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해야함은 물론이다.

이 팀장은 “첫 입사때는 자부심이 있었다. 한국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알린다는 자부심으로 일

했다.”면서 “고객들이 ‘우리 제품이라면 믿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비록 당장은 구매하지 않는 고객일지라도 잠재적인 고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영화 ‘What Women want’를 예로 들면서 “영화에서 멜 깁슨이 여성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고객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듣고 싶다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요즘 마케팅 팀에서는 전면광고 버스(Wrapping Car) 마케팅을 기획중이라고 한다.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 인터뷰 후에도 토론이 이어졌다. 이제는 고객의 마음을 끌어내야하는 이 팀장과 팀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글 김도용 · 사진 조인기

**고객과
교류하고
신뢰를 쌓아라**

하지만 무엇보다 이승룡 팀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었다. 고객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얻는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새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피부미용 의료산업의 구조상 기존 고객

세계 초우량 기업을 향해가는 원익인의 DREAM · CHALLENGE · PASSION

Pa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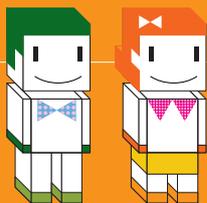
SECTION 03



36 Zoom in
(주)원익머트리얼즈 뉴시동호회 <원배클>
윌척도 낚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낚고



38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원익아이피에스 한마음봉사단 사랑의 저녁식사 배식 봉사
정성을 담은 식사 한 끼로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다



40 Talk Box
원익사의 이런 동료에게 자극받는다
이런 동료에게 자극받는다

Zoom in

(주)원익머트리얼즈 낚시동호회
원배클



월척도 낚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도 낚고 ONE BACKL



낚시를 기다림의 미학에 비유하곤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루어낚시가 유행을 하면서 낚시는 활동적인 레저스포츠로서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루어낚시는 점차 대중적인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익인 중에도 지루하지 않고 활동적인 루어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으니 (주)원익머트리얼즈 낚시동호회 원배클이 바로 그들이다.

유난히도

긴 겨울이 지나갔다. 벚꽃이 활짝 피면서 봄기운이 만연한 지난 4월 16일 충북 보은에 위치한 대청호에서 <원배클>('원익머트리얼즈 베스 클럽'의 약자, 이하 원배클)의 정기 모임이 있었다. 올해 초까지 이어진 추위로 한동안 낚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배클 회원들은 기대에 찬 눈빛이었다. 동호회 회원

들의 바람 때문인지 날씨도 더할 나위 없을 만큼 짹짹했다. 원배클 주요멤버인 이병섭 대리는 “바쁜 업무로 많은 인원이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겨울도 지나갔고 회원 가족들과 함께 가족 나들이도 병행할 겸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고 이야기했다.

<원배클>은 2009년도에 결성됐다. 이병섭 대리를 중심으로 루어낚시를 즐기는 직원들이 함께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 회사에 5분 거리에 '미호천'이 있어 낚시를 하기에 나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다함께 낚시를 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고 타 팀원과의 유대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동호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배클>은 루어낚시 동호회다. 루어낚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가벼운 장비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털, 나무, 금속,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가짜미끼'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낚시처럼 밑밥을 사용하지 않는다. 보다 가볍고 활동적인 낚시가 가능하다.

동호회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원배클>의 노리는 주요어종은 베스인데, 베스는 공격적이고 움직이는 물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루어낚시의 대표어종 중 하나다. 블루길과 더불어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는 어종으로 악명이 높아 토착어종





마지막으로 그는 동호회 가입을 희망하는 원익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물속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월척에 대한 기대감으로, 던지는 첫 캐스팅 때의 설레임, 그리고 배스를 잡아 올릴 때의 그 짜릿함. 이 모두를 같이 함께 맛보고자 합니다.”

짜릿함과 설레임의 루어낚시. 그리고 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원배클>. 현재는 이용호 동호회장이 모임을 이끌고 있다고 한다. 낚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장비에 대한 걱정이 앞서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곳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새로운 낚시의 세계를 경험할 것이다.

글 김도용 · 사진 조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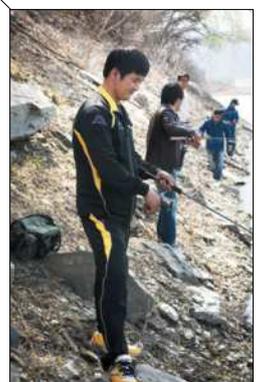


보호를 위해 낚시꾼들 사이에서 낚시를 권장하고 있을 정도다. 물론 공격적인 만큼 손맛도 짜릿하다. 또한 최근에는 맛이 없다는 선입견을 깨뜨리고 요리재료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보이면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수확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이병섭 대리는 <원배클>의 장점으로 가장먼저 ‘회원들만의 레저’가 아닌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가족 중심의 문화’를 손꼽았다. 분기마다 1회씩 정기 출조를 가족 동반을 진행하면 주중에 쌓인 스트레스도 풀리고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는 물론 가족들과의 시간도 모두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볍게 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퇴근 후 근거리 출조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고 한다. 평소 낚시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은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바로바로 해소하면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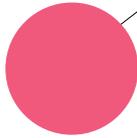
아쉽게도 오늘의 낚시는 큰 수확을 거둘 수가 없었다. 생각보다 수온이 낮고, 그 때문에 배스의 활성도가 떨어져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없었던 것. 그러나 이 대리는 “3개월 만에 만난 가족들이 서로 안부도 전하고, 아이들도 맘껏 뛰어놀아 좋았다.”면서 밝은 모습이였다.

앞으로 <원배클>은 좀더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을 할 계획이다. 외부 대회 참가는 물론이고 회사 홍보도 함께하는 ‘핑먹고 알먹고’ 전략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이 대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운이 따른다면 대회에 입상도 꼭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동호회의 힘찬 활동을 다짐했다.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원익아이피에스 한마음봉사단
사랑의 저녁식사 배식 봉사



정성을 담은 식사 한 끼로 이웃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간단하게 3분만 조리하면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제품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나 자취생활을 하는 경우 피곤한 몸으로 요리까지 하려면 대단한 근성을 요구할 때도 많다. 그러나 제 아무리 편해도 정성이 담긴 따뜻한 한 끼 '집 밥'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정성들여 준비한 식사에는 재료이외의 따뜻함이 첨가 돼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께서 차려주시던 한 끼 식사에 담겨 있는 아련한 추억과도 같은 따뜻한 말이다.

지난 2월 28일 오후 4시 40분경.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에 위치한 소망브니엘동산에 (주)원익아이피에스 한마음봉사단이 찾아왔다. 올해로 4년째 인연이 닿은 소망브니엘동산에 자원봉사를 온 것이다. (주)아이피에스와 (주)아토의 통합 이후 바쁜 일정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낸 봉사단원들의 모습은 흐린 날씨와는 다르게 밝은 모습이었다.

모든 인원이 도착하자마자 한마음봉사단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늘의 봉사활동은 소망브니엘동산의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것. 차로

가져온 기부물품을 내리는 것으로 첫 봉사가 시작됐다. 잠깐 소망브니엘동산 식구들과 단체사진을 찍는 것을 잠깐의 휴식으로 삼고 한마음봉사단원들은 곧바로 저녁식사 준비에 돌입했다. 사우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우정 과장(환경안전팀)은 “원래 저녁식사 시간이 5시인데 30분정도 양해를 구했다.”고 이야기하고 “회사 통합 이후로 바쁜 일정임에도 첫 봉사활동에 참가한 봉사단원들이 대견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오늘의 요리는 카레. 원래는 김치찌개였지만, 조리시간을 감안해 양해를 구하고 메뉴를 변경했다. 그래도 명색이 저녁식사 봉사인데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싶기 때문이다. 시간이 시간인 만큼 8명의 봉사단원이 재료다듬기에 나섰다. 감자와 당근, 양파와 돼지고기를 썰는 모습이 어색하지만 표정만큼은 프로급이다.

다듬기를 10분 정도가 흐르고 모든 재료를 다듬을 수 있었다. 봉사단원은 흠어져 뒷정리와 식사준비를 시작했다. 부엌에서는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치우고 다듬은 재료를 열심히 볶기 시작했고, 식당 테이블을 닦고 소망원 식구들과 함께 시정할 영상을 준비하는 등 봉사단원의 모습은 분주했다.

다듬은 요리재료들을 노련하게 볶는 허필웅 대리(기술개발팀)는 아이피에스 시절부터 봉사 동호회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허 대리는 “자주 봉사활동에 오지는 못하지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잘하지는 못하지만 요리를 즐긴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봉사활동을 하면 기분도
좋고 마음도 따뜻해진다

(생산팀)은 “생각보다 요리 재료를 다듬는 것이 어려웠다. 이동규 과장님의 권유로 처음 참가하게 됐는데 요리를 하는 줄은 몰랐다. 요리보다는 힘쓰는 게 더 편한 것 같다.”고 첫 봉사활동의 소감을 전했다.

식사시간이 되자 소망브니엘동산 식구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여러 번 이곳을 찾은 이동규 과장(생산팀)을 알아보는 이가 많았다. 서로 웃으면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안부를 묻는 모습이 그를 많이 반기는 눈치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여러 차례 봉사활동도 오고 같이 놀이동산도 함께 가는 등 기회가 많아지면서 친해질 수 있었다. 놀이동산 함께 갔던 것도 기억한다.” 1층 배식을 마치고 봉사단원들은 배식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들은 일일이 음식을 떠먹여줘야 하는 경우가 많다. 김길자 소망브니엘동산 원장은 앞에서 봉사 단원에게 장애우의 이름과 식사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봉사단원들의 봉사활동을 도왔다.

김 원장은 “봉사활동 체험을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이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했다. 먹은 식판을 설거지 하는 것으로 한마음봉사단은 오늘의 봉사활동을 마쳤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결코 만만하지는 않았다. 박우정 사우회장은 “(주)원익아이피에스 인원이 550명 정도 되는데, 사원 모두가 봉사대상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 바쁜 일정에 봉사활동에 참여할 마음을 먹는 게 쉽지 않다.”고 봉사단운영방향과 고충을 털어냈다. 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회사의 위치가 진위로 이동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소망브니엘동산에 찾아올 계획이다. “한번 맺은 인연을 끊을 수 없지 않나.”는 것이다.



테이블 정리를 담당한 박미영 사원(기술개발팀)은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봉사활동을 하면 기분도 좋고 마음도 따뜻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사원은 이어 “물론 귀찮을 때도 있지만 봉사활동 후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회사가 통합되고 바쁠 때라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처음 봉사활동에 참가한 김진호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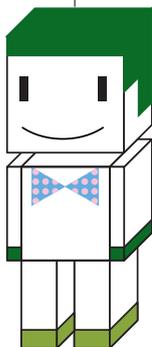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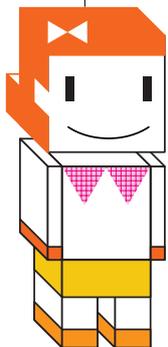
끝으로 박우정 사우회장은 “일반적으로 봉사라는 것이 귀찮게 인식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원익가족들의 동참을 강조했다.

봉사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한다. 큰 계획을 세우기보다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즉, 마음먹기의 문제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저녁식사를 받은 소망브니엘동산 식구들은 이 날의 추억을 분명 따뜻하게 기억할 것이다.

원익사
이런 동료에게 자극받는다

이런 동료에게

자극받는다



원익
통상3팀

홍모란 사원



'저 친구...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긴장이

바짝 든 적이 있는가?

회사생활 중에 동료가 나에게 준 자극은 그의 어떤

모습 때문인가...?

그 모습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직장생활 중에 본인에게 자극을 준 동료의 모습을

말해보며, 직장생활을 개선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

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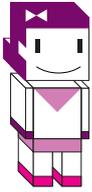
최근 들어 머릿속에 자주 맴도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하거나 영원히 하지 않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하건, 업무의 특성이나 성격을 떠나서 일을 미루지 않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 옆의 동료를 볼 때면 미루는 법 없이 항상 그때 그때 일을 잘 처리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업무라도 미루게 되면 결국 기억해야 하고 나중에 챙겨야 할 목록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물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업무의 중요도가 있긴 하지만 작은 업무일수록 미루다 놓쳐 버리는 일이 종종 있는 저로서는 그 동료를 보면 자극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음에도 쉽게 "나중에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라는 습관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성격상 저는 이런 저런 파일들을 잘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성격입니다. 이 친구를 보면 항상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꼭 필요한 것들만 정리하는 업무스타일에 종종 자극을 받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 보지도 않고 움켜쥐고만 있는 서류들이나 파일들 때문에 정작 내가 필요

한 것들을 신속하게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컴퓨터 휴지통도 잘 비우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데 버린 건 없었을까..' 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든 물건이든 파일이든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해야만 현재 꼭 필요한 것들에 충실할 수 있게 되고, 미래 새로운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버리고 비우는 일을 잘 하는 이 동료가 제겐 자극이 됩니다.

(주)원익
총무팀

권윤정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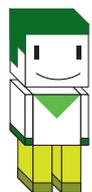
대부분의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이직하고 싶은 첫 번째 이유 그리고 직장인 스트레스 첫 번째 이유로 직장동료 또는 상사와의 관계를 뽑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직장인 이라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직장동료와의 관계가 일을 잘하는 것만큼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동료들과의 우애가 좋은 동료에게 자극을 받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는 대부분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 동료뿐 아니라 선후배 관계에서도 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누가 먼저 할까 고민하지 않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동료를 볼 때면 동료들과의 관계 또한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즐거운 회사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되기 위해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네는 하루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주)원익퀴츠
경영지원본부 총무팀

장국영 사원



저는 이제 (주)원익퀴츠 총무팀으로 입사를 하게 된 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신입사원입니다. 제가 자극을 받는 동료는 한 명이 아닌 "팀 전체 = 팀워크"가 저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 같습니다. 총무팀의 업무 특성상 자신의 주 업무와 더불어 부수적인 회사 일에 관여를 하여 처리해 나가야 하기에 큰 미션에서는 총무팀 개개인이 맡고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팀 전체가 하나가

“ 제가 자극을 받는 동료는 한명이 아닌 “팀 전체 = 팀워크”가 저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 같습니다. ”

되어 해결해 나가고 자신의 전문성과 더불어 다른 부수적인 업무의 해결 능력까지는 갖춘 multi-player로 변해 미션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모습! 어렵고 힘든 업무를 하면서도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는 “팀워크” 와 multi-player의 전문성을 가진 구성원들! 저도 하루 빨리 우리 회사, 우리 팀의 구성원으로 제가 가진 전문성으로 팀과 더욱더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불어 주어진 모든 업무에 능수능란하게 해결할 수 있는 multi-player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원익퀴츠
생산본부 기술지원팀

김태훈 사원



누구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목표 삼아 그 목표를 향해 달려 갑니다.

본인의 나아갈 방향이나, 또는 동료 중에 뛰어난 상대를 통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을 배우고 노력하면서 본인도 발전을 하는데요! 저도 역시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번쯤 느껴 봤고 아마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공감할 것들을 몇 가지 적어 봤습니다.

1. 한번 알려 준걸 저 친구는 두 가지 세 가지 응용해서 일 처리할 때. (문일지십(聞一知十)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2. 부탁을 할 때 동료가 잘 도와 주지 않는데 저 친구는 상대를 잘 설득하여 부탁할 때.
3. 나보다 외국어(일어, 영어 등등) 잘할 때.
4. 동료가 넌 이것도 모르냐고 면박 줄 때.
5. 주변에서 저 친구 운동이면 운동, 일이면 일 똑 부러지게 잘 할 때.
6. 나보다 입사일은 비슷한데 진급 먼 저할 때. (진급자 발표날)

위에 예제들은 저는 직장 생활 중에 한번쯤은 모두 느껴봤을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위의 예제 중에 공감 가는 것은

원익사
이런 동료에게 자극받는다

3번과 5번인데요.

나보다 나이는 한 살 어리지만, 운동도 잘하고, 일하는 것도 너무 똑 부러지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때 가끔 저에게 있어 자극을 주는데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니, 메모하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쉽지만은 않지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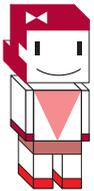
메모하는 습관은 차매예방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

모두 이런 주변친구나 동료로부터 자극이 받아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해 모두 불안감이 크실 텐데 빠른 시일 내 불안감이 해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주)
인사총무팀

이윤정 대리



처음 회사에 입사 했을 때 동기가 무려 나를 포함하여 7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개성과 주관과 뚜렷하여 항상 다른 분들에겐 비교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성격 좋고 적극적인 친구는 소심한 친구에 비해 인기도 많고 동기뿐만이 아니라 상사들에게도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질투도 나고, 나 또한 인정 받고 싶은 마음에 모든 일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 소심함을 버리고 좀 더 사람들과 어울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심함을 버리기 보다 매사 적극적이고 뭔가 하려고 도전했던 동기들이 업무능력이 발전하고 상사에게 인정 받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 소심함을 버리고 좀 더 사람들과 어울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익아이피에스
SMC본부 연구팀

김성백 사원



신입사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처음으로 사회에 첫 발을 떼게 된 후로, 가장 많이 느낀 건 시간 관리로 인한 업무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입사 한 뒤의 생활을 되돌아 보면, 막상 발등에 떨어진 일만을 처리 하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와 비교하여 저희 팀장님과 같이, 플래너 등을 이용하여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업무 효율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자아 개발 시간도 충분히 활용하시는 모습은 저에게 많은 자극을 주십니다.

‘길을 가다가 만나는 세 사람 중에 반드시 한 명은 스승이 있다’ 라는 옛 말과 같이, 주위의 동료, 선배 모습 중에 모범 되고 숙련된 업무 능력에 자극을 받고 한층 더 발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원익아이피에스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팀

김정훈 대리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4월입니다. ‘이런 동료한테 자극 받는다’ 라는 글을 쓰게 되면서 저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도 저런 동료가 되고 싶다’ 고 느낀 경우를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계획성 있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목표하는 시간에 맞추어 미리 준비하고 정확히 일을 끝내는 동료를 볼 때 정말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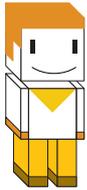
둘째,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업무시간 후에 영어수업, 업무관련 공부 등을 열심히 하는 동료를 보면 왠지 제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고,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 처리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는 동료를 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동료에게 자극 받

는다'는 것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동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다 보면 저도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해야겠습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기획관리본부 기획관리팀
이정환 사원



신입사원인 저에게 있어서 인사 잘 하고, 항상 밝은 모습을 유지하는 동료들 볼 때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활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맡고 있는 신입사원으로서, 힘찬 인사와 밝은 미소는 좋은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때, 저도 모르게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일이 많을 때는 누군가 내 옆을 지나가더라도 인사 드리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씩씩하게 인사하는 모습의 동료들 보면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찬 인사와 밝은 모습의 동료는 저 뿐만 아니라 회사 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동료들 볼 때마다 저 역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밝게 회사생활을 해 나가야겠다고 저 스스로에게 힘을 줍니다. 저의 동료처럼, 저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품질팀
이성우 선임



입사시기도 비슷하고, 저와 나이도 같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혼자 일해야 하는 저와는 다르게, 그 친구는 타 부서원들과 함께 일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업무와는 상관없이, 회사 내 누구와도 스스럼없이 친해지는 친화력에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 친구는 첫 직장생활을 하는 저에게 주위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로 이직 후, 품질팀 업무를 하면서 많은 종류의 실무자들을 접하게 되

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는 관계를 통한 즐거움 뿐만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 업무인계를 원활히 받을 수 있고 서로간 업무 능률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동료들의 헤어스타일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시시콜콜한 농담이라도 대화를 자주 하여 동료, 상사들과 소통하여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항상 옆에서 웃음을 주고 저의 자극제가 되는 동료들로 인해 회사생활이 즐겁기만 합니다.

좋은 자극제는 옳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인 듯 합니다. 모두들 좋은 자극들 많이 받으시고, 발전해가시길 바랍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인사총무팀
김소연 사원



평소 직장 동료들과 일할 때는 나랑 비슷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친해져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 퇴근 시간 이후 삶이 나랑은 많이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순간 이대로 가다간 나만 뒤쳐져 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평소 회사 일과는 비슷하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활 시간 활용에 있어서는 자기계발에 노력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직장 동료들 봤을 때 저 친구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난 미래에 대한 설계도 제대로 하지 못한 내 자신에 한심해지며, '이대로 있으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며 개인시간 활용하는 방법을 바꿔 보는 등 여러 노력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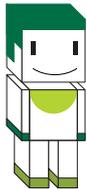
평범해 보이지만 자기계발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직장 동료의 모습은 제 자신에게 자극을 줌으로써 제 미래까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Talk Box

원익사
이런 동료에게 자극받는다

(주)원익머트리얼즈
품질팀

이진우 대리



전 직장에서 만나게 된 동료는 사실 처음 입사 시에 함께 입사한 다른 직원들에 비해 상사에게 꾸중도 많이 듣고, 업무능력 부족한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매일 계속되는 엄중한 꾸중에도, 주눅들지 않고 웃으면서 늘 긍정적인 모습으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이, 사실 '이 사람은 화도 나지 않나?', '속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회사가 갑자기 정말 정신 없이 바빠진 시기에, 모두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지치고 힘들어 다들 말수조차도 줄어든 힘든 시기에, 이상하게 그 동료는 다들 싫어하는 야근이 주어져도 웃으며 그 시간조차도 즐기는 모습으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자기가 자기 일을 좋아해야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불평하면 좋을 게 없다며, 모든 것을 좋게 좋게 생각하다 보면 힘든 것도 즐거워 진다고 하더군요. 그 동료의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계속되었고, 점점 상사를 비롯해 여러 직원들에게서 그 동료에 대한 칭찬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변하지 않은 긍정적이고 성실한 모습에 다들 그를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동료는 정말 주변사람에게 긍정의 힘으로 자극을 주는 동료였습니다.

직장생활에 있어서 긍정의 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짜증나고 힘든 시기가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얼마나 즐기고 긍정의 힘으로 이기느냐는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 동료 덕분에 저도 긍정적인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지금까지도 언제나 긍정의 힘을 잊지 않고 즐기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늘 노력 중입니다.

“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짜증나고 힘든 시기가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얼마나 즐기고 긍정의 힘으로 이기느냐는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습니다. ”

(주)원익머트리얼즈
품질팀

이기원 대리



(주)원익머트리얼즈 품질팀은 무척이나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입니다.

품질경영/관리/보증은 물론, 혁신업무와 가장 중요한 고객대응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 중에서, 품질부적합의 원인발굴 및 조치업무나, 고객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리/대응하는 업무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제 위로 과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3년간 함께 동일한 업무를 진행했으며, 동일한 업무에 대한 접근방법이 뛰어나신 분이었고, 각종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원인발굴과 해결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능력이 특히나 돋보인 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그 과장님은 정말 많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당연스레 그 분을 롤 모델로 삼고, 정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직접적인 답변이 아닌, 간접적인 답변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단어 하나를 물어보면 사전을 통째로 던져주는 식이었고.

하지만 그러한 패턴의 반복으로,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직을 하시고, 함께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주)원익머트리얼즈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분은 영원히 좋은 자극제이자 롤 모델일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좋은 자극제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위닉스
구매팀

정미란 사원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걸리던 저희 집이, 사무실 이전으로 이제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다른 직원 분들이 한참 지옥철에서 또는 버스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시간에도 저는 단잠에 빠져있지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 하는 것도 하나의 복이라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조건을 가지게 되었으면,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해야 하는데 사무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저는 더더욱 게을러 지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 멀리서 출근을 해도 학원도 다녀 보려

하고, 아침에 운동도 하려고 했던 저의 굳은 의지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걸까요. 지금도 저희 회사에는 아침 출근 전,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학이면 어학, 운동이면 운동, 취미활동이면 취미활동, 다양하게 자기 관리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 이외에 다른 활동도 열정적으로 참여 하시는 동료 분들을 볼 때, 가장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저를 뒤돌아 보게 되네요. 당장 뭐라도 시작 해야겠습니다!

㈜위닉스
인사총무팀

이태율 사원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동갑인 동료가 있었습니다.

저희 둘은 퇴근 후 함께 학원을 다녔는데 친구는 꾸준히 학원을 다녔고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주 빠지고 몇 달 후 저는 학원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영어실력이 뛰어나야 했기에 열심히 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부럽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꾸준히 학원을 다닌 결과 현재는 통·번역 반에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업무에 관련된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여 능력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것이 도전적이고 현명해 보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노력하는 친구의 모습,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성실함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위닉스
기구디자인

오정학 사원



어느덧 ㈜위닉스에 입사한지 1년 6개월 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전 이곳에서 정말 많은 것들 보고 배운 것 같습니다.

옛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라는 말 아무리 배워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전 이제 배움의 첫 스타트를 끊은 신입사원 입

“ 아직은 한참 부족한 저 보다 더욱더 열의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에게 자극이 되어 풀어진 마음을 다시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

니다. 노력을 하여 배운다면 응당 제가 더 노력을 해서 배워야 하지만 현실은 정 반대였습니다.

항상 연구 하고 새로운 기술을 찾고 새로운 지식을 찾아 노력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고 안일하게 가르쳐 주는 것만 배워 만족해 하는 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한참 부족한 저 보다 더욱더 열의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에게 자극이 되어 풀어진 마음을 다시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원익투자파트너스(주)
기업투자본부

이기진 팀장



그녀는 최근에 회사에 합류했고 나는 오래 다닌 그 회사를 2개월 정도 교차하면서 떠나갔다. 회사를 그만 두기 전에 꼭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 용기를 내어 차 한잔 하시죠 라고 제의했고 off-line에서 접속했다. 공통점은 GIFT(Google, I-phone, Face book, Twitter) 족이라는 것. 그러나 그녀는 100%이상 활용하는 GIFT계의 Leader였고 난 그냥 그런 ‘족’이다.

그녀는 대리였고 난 왕고참 부장이었지만, 난 그녀의 GIFT계의 Leadership과 Power 영향력을 추종하는 추종자이다. 지금 세상은 인터넷 상의 Power 블로거, 소셜 네트워킹의 지존, 이를 사업화하여 성공화시키는 ‘신 인류’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이런 IT시대 선두에 있는 그녀를 보면 긴장하고 자극을 받는다.

(페이스북에 가입하셔서 검색란에 ‘비비안리’를 치시면 자칭 브로콜리교 교주라고 칭하는 신출귀몰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친구맺기를 한 번 해 보세요.)

동일본 지진 경제 여파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난 지 두 달이 다 되간다. 일본 정부는 대지진 이후 일어난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태로 향후 자국 경기판단을 하향 조정했다.

일본 내각부는 최근 월간경제보고서에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지진 이후 약화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도쿄 일대까지 전력공급이 제한돼 산업생산에 차질이 빚어졌고, 제조업체이 부품을 제 때 구하지 못 한데다, 해외에서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일본의 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요사노 가오루 일본 경제재정상은 “대지진 피해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예상보다 커졌으며 재건사업 규모도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BOJ)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기부양과 복구지원을 위한 특별창구를 열어 재해지역 금융기관에 1조엔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본 내 상황은 당분간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미즈호종합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긍정적인 경기전망을 내놓기 어렵다”며 “대지진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 지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원전 사태 해결도 당분간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위기는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일본 최악의 위기로 일컬어지는 이번 대지진 여파가 경제계에 미칠 후유증은 더욱 오래갈 전망이다.

이와 같은 대재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식량난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일본의 식량자급률은 40%다. 여기에 자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산물의 방사선 오염이 확산되면서 식량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정유시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되면서 원자재가격 상승과 함께 물가 압박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월 20일에는 후쿠시마현에서 가까운 이바라키현 히타치시에서 재배한 시금치에서 1kg당 무려 5만4천Bq(베크렐)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 일본 식품위생법의 잠정 기준인 2천Bq의 27배다. 이에 앞서 후쿠시마현에 인접한 기타이바라키시에서 재배된 시금치에서도 잠정 기준치의 약 12배인 kg당 2만4천Bq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고,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우유와 축갯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나왔다. 이는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치바현, 군마현, 도치기현의 농산물에서도 방사선이 검출됐고, 도쿄에서는 수도물에서 소량의 방사성 요오드가 검출됐다.

식량사정이 악화되면 미국, 중국, 호주 등에서 식량수입을 확대하겠지만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량난과 함께 물가 불안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는 만성 디플레이션이 문제였던 나라다. 투자가 줄어들고 생산이 부진해지면서 다시 소비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장기간 지속돼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2009년 3월 이후 마이너스였다. 그러나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산업생산의 기반인 정유시설은 이번 대지진으로 전체 생산량의 30% 정도가 감소할 예정이다. 일본 최대 정유업체인 JX니폰오일은 피해지역의 공장

가동을 대부분 중단했다. 도요타 등 세계적인 기업은 부품이 없어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다.

더구나 일본 정부가 대지진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펴리라는 기대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대지진 이후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량을 늘릴 경우 대기업의 수출과 세수 확대 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되는 것이다.

대지진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엔-달러 환율은 엔캐리 트레이드(일본 내 저금리로 해외 고수익 자산에 투자된 일본 자금) 청산이 확산되면서 환율은 전후 최저 수준인 달러당 76.52엔까지 떨어졌다가 겨우 80엔대로 회복됐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일본은행이 대지진 이후 1주일간 시장에 폰 돈은 80조엔이 넘는다. 돈이 많이 풀리면 경기 회복은 다소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물가상승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동일본 대지진의 경제 여파는 많은 적든 어떠한 형식으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의 예측결과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여 다가올 경제 여파에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정연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기자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환상적인 뮤직 페스티벌이 찾아온다

오는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서울재즈페스티벌 2011”이 개최된다. 도시 속 플라스틱 뮤직 페스티벌로 평가되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외 최정상 뮤지션들이 함께해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팻 메스니
Pat Metheny



게리 버튼
Gary Burton



스티브 스왈로우
Steve Swallow



안토니오 산체스
Antonio Sanchez

| | |
|-------|--|
| 공연일시 | 2011. 5. 9(월) ~ 2011. 5. 12(목) |
| 장 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 시 간 | 5. 9(월), 11(수), 12(목) 8:00PM / 5.10(화) 6:00PM |
| 관 람 료 | (5월 9일, 12일) R석 132,000원/S석 110,000원/ A석 88,000원/B석 66,000원/C석 55,000원 (5월 10일~11일) R석 165,000원/S석 132,000원/ A석 99,000원/B석 77,000원/C석 66,000원 |
| 문 의 | 02-563-0595 |
| 홈페이지 | www.Privatecurve.com/sjf2011 |

2007년 5월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5회 째를 맞이하는 “서울재즈 페스티벌”은 팻 메스니, 조샘플과 랜디 크로포드, 스웰시즌, 크리스 보티, 에릭 베네세르 지오 멘데스, 타워오브파워, 크루세이더스, 인코그니토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김광민, 배장은 트리오, 정재형, 루시드 폴, 박정현 등 탄탄한 실력을 갖춘 국내 뮤지션들의 무대를 선보이며 짧은 시간 동안 수준 높은 명성의 페스티벌로 자리잡았고 이번 2011년에도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5월 9일 실력파 보컬리스트 박칼린의 무대 ‘THIS IS KOLLEEN’가 선보일 예정이다. 박칼린은 ‘명성왕후’의 음악감독을 시작으로 ‘오페라의 유령’, ‘미스사이공’, ‘아이디’, ‘시카고’, ‘렌트’, ‘헤어 스프레이’ 외 다수의 유명 뮤지컬의 음악감독과



연출을 담당하는 등 한국 뮤지컬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실력파 뮤지션이다. 무대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박칼린의 화려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와 함께 최재인, 장재인, 리드미스트 그리고 실력파 뮤지컬 배우들이 함께하는 버라이어티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10일과 11일, 2일간은 재즈 레전드들의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재즈 레전드들의 월드프리미어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무대에는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 팻 메스니와 그의 친구들이 펼치는 ‘팻 메스니 & 프렌즈 (Pat Metheny & Friends)’가 펼쳐질 예정이다. 팻 메스니를 비롯해 그의 친구들 게리 버튼 (Gary Burton), 스티브 스왈로우(Steve Swallow), 안토니오 산체스(Antonio Sanchez)는 그래미 수상 17는 물론 33회 그래미 노미네이션 등 환상적인 경력을 자랑하는 최고의 재즈 거장들이다.

12일에는 카산드라 윌슨(Cassandra Wilson)와 게이코 리(Keiko Lee)의 ‘JAZZ DIVA NIGHT’이 펼쳐진다. 카산드라 윌슨은 타임즈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가수’로 2회의 그래미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다. 9살부터 피아노와 기타를 치기시작해 12살부터 작곡을 시작했다는 그녀는 미국이 자랑하는 여성 재즈보컬리스트이자 송라이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게이코 리는 아시아의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다. 일본에서 재일교포 3세로 태어난 게이코 리는 나고야 재즈 클럽 등지에서 재즈가수들의 무대 피아노를 치면서 음악생활을 시작해 일본에서 다수의 음악상을 수상하는 한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유럽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최근 ‘Don’t know why’, ‘Across the universe’ 등의 명곡을 재해석한 ‘Smooth’를 발표하면서 부드럽고 편안한 음악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3일간의 재즈 페스티벌은 그 동안 재즈 음악에 목말라했던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좋은 기회는 물론 한국 재즈사에 남을 역사적인 공연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물 사진의 거장 카쉬展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은
그들의 마음, 내면, 영혼에 담긴 위대함을 찍는 것이다.”
_유섭 카쉬(yousuf karsh)

전시기간 2011.5.22(일)까지
장 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관람시간 AM11:00~PM8:30
(전시종료 1시간전
입장 마감)
관람료 성인9,0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6,000원
문의 1544-1681
홈페이지 www.Karshkorea.co.kr

윈스턴 처칠, 오드리햅번을 비롯한 20세기 영웅들의 사진을 카메라로 담아낸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유섭 카쉬(Yousuf Karsh)의 전시회가 다시 한 번 한국땅을 밟았다. 이번 전시회에는 2년 전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분야의 인물사진이 추가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26일부터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는 세계적인 인물사진의 거장, 유섭 카쉬(Yousuf, Karsh, 1908~2002)의 5월 2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20세기 영웅들의 사진을 카메라에 담았던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유섭 카쉬는 '인물사진의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는 사진계의 거장이다. 이번 전시회는 1930년대부터 1990년대 까지 4,000여장의 카쉬 작품 중 작가의 작품경향을 살릴 수 있는 대표작 중심으로 엄선된 총 10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인물사진(Portraits), 손(Hands), 풍경(Landscape) 3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그녀의
연약한
내면이 담긴
특별한 사진



오드리
햅번

Audrey Hepbu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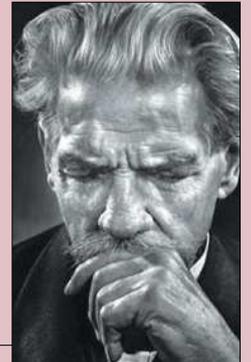
그녀의
고양이
이름은
카쉬



엘리자베스
테일러

Elizabeth Taylor

충실히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알버트
슈바이처

Albert Schweitzer

첫 번째 파트에서는 카쉬가 만난 정치가, 예술가, 배우, 과학자들의 모습이 사진속에 담겨있다. 인물 사진에 대한 카쉬의 남다른 열정과 그만의 독창적인 촬영 기술을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카쉬가 특히 애정을 갖고 촬영했던 '손 사진'을 만날 수 있다. 카쉬는 사람의 성품과 직업에 따라 다른 분위기의 손을 촬영함으로써 인물사진과는 다른 손 사진의 매력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에서는 카쉬의 생활했던 캐나다의 모습을 담은 '풍경사진'을 살펴보는 곳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캐나다의 산업 발전 시대를 살았던 카쉬의 생생한 시선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물사진의 거장 카쉬'展은 국내 최초 전시되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14세 때의 사진과 그레이스 켈리, 오드리 햅번을 비롯해 윌트

디즈니, 루돌프 누레예프, 글렌 굴드, 재클린 케네디, 사갈, 크리스찬 디올, 넬슨 만델라, 무하마드 알리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양한 분야의 인물사진이 공개된다.

또한 사진 속 명사들의 일대기 및 카쉬가 직접 기록해 놓은 촬영 당시의 자세한 에피소드도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카쉬의 작품 세계관은 물론 문학과 역사를 넘나드는 깊은 감동을 전해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작들은 디지털 프린팅이 아닌 캐나다 유섭 카쉬 재단(the Estate of Yousuf Karsh)이 소장하고 있는 카쉬의 자작 오리지널 빈티지 필름으로 소개되어 그 의미가 깊다. 카쉬가 의도한 메시지를 관객에게 가장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 자체가 지닌 역사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환절기에 쉽게 찾아오는 질병들, 꾸준한 관리로 봄을 건강하게!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이 따뜻한 바람에 긴장이 풀리는 계절 봄이다. 나른함과 함께 춘곤증까지 더해져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럴 땐 종종 야외로 나가 산보를 하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자칫 꽃가루가 눈과 코를 자극해 비염과 결막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조금만 신경 쓴다면 매일매일 작은 관리로 염증을 예방하고 산뜻하고 건강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

코막힘엔 쑥

비염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봄철 꽃가루 때문에 코가 답답하고 자주 막힐 수 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위험인자가 비강 내 점막을 자극하여 부종이 생기고 혈관이 확장되어 비염으로 발전한다. 코가 막히면 호흡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머리가 무거워 업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코막힘이 심할 때는 말린 쑥을 물에 적셔 콧구멍을 막아둔다. 말린 쑥을 구하기 어렵다면 그냥 쑥을 잘 비벼 콧구멍을 막아둘 수도 있다. 잠시 후면 막힌 코가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다. 5월 단오 햇볕 보기 전의 쑥이 약효가 가장 좋다고 하니 내년을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좋다. 가을 쑥은 오히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자.

결막염엔 베리 (Berry)

결막염은 주로 알레르기성 비염과 함께 발생한다. 계절탓이기도 하지만 알레르기성 비염이 만성화되면 합병증으로 발병하기도 한다. 안토시아닌 색소가 들어있는 유색 채소,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평소에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안토시아닌은 각막과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물질을 활성화시켜 눈의 피로와 각종 안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블루베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등의 대부분의 베리류에 가장 많으며 각종 포도, 자색 고구마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안토시아닌은 산성에서는 진한 붉은색, 중성에서는 보라색, 알칼리성에서는 푸른색, 녹색, 검은색 등 다양한 색을 띤다.

나른할 땐 풍지혈 마사지

풍지혈(風池穴)은 귀 뒤의 딱딱하고 크게 튀어 나온 부분과 목 뼈(경추 1번)가 시작되는 점의 중간, 잔 머리카락이 있는 지점이다. 후두부를 엄지로 눌러 보았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곳을 마사지 해주면 무겁던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피로하고 뒷목이 뻐뻐한 증상을 완화해 피로를 줄여줄 수 있다.

풍지혈은 뇌동맥의 끝단에 위치하여 뇌, 귀, 눈으로 가는 혈액의 중심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오래 고정된 자세로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하루 한 번씩 꼭 지압을 하자.